

1985年
景氣統計關聯資料集

第2. 新聞報道資料(1985.1.1~12.31)

1986. 6

調查統計局 統計分析課

030071

일 러 두 기

'85年中 新聞에 掲載되었던 景氣關聯 記事, 社說, 寄稿, 對談內容 가운데 景氣指數와 關聯되는 內容中에서 重複이 안되도록 主要 資料를 拔萃하여 收錄한 것임.

'85年中 新聞에 掲載되었던 內容中 分量關係로 여기에 收錄하지 않은 部分에 대하여는 別途로 目錄을 添附하였으니, 參考하시기 바람.

目 次

< 2月中 >

- 景氣를 보는 視角(社說) 9

< 3月中 >

- 景氣診斷에 差異 크다.(社說) 11

< 4月中 >

- 景氣擴散指數(DI)와 景氣診斷 ① ② (寄稿) 13
- 景氣對策(社說) 15
- 景氣먹구름 언제 걷힐까(記事) 17
- 요즘經濟 이래도 됩니까②(對談) 18

< 5月中 >

- 요즘經濟 이래도 됩니까⑥⑦(對談) 19
- 申秉鉉부총리가 말하는 「요즘經濟」(對談) 21
- 實務局長과 業界代表가 긴급診斷하는 現實經濟(對談) 22
- 요즘經濟 어떤가①~④(記事, 對談) 23
- 景氣 지나친 樂觀도 悲觀도 안좋다(寄稿) 27
- 經濟 어디로 가는가①~⑥(記事, 對談) 28
- 最近의 景氣先行指數(社說) 34
- 景氣論爭과 安定化 施策(社說) 36
- 經濟 안좋을때 「逆의 發想」을(記事) 40
- 「經濟현실」 診斷의 相反(記事) 41
- 景氣, 不況인가 好況인가(寄稿) 42
- 實感景氣, 指數景氣 왜 차이가 나나(寄稿) 43
- 「全體」와 「部分」 差異가 심한데...(寄稿) 44
- 景氣不振 原因은 무엇인가(寄稿) 45

• 安定化 施策 얻은 것과 잃은 것 (寄稿)	46
• 「經濟成長」은 어떻게 될까 (寄稿)	47
• 景氣動向에 대한 對應策은... (寄稿)	48
< 5月中 >	
• 오늘의 經濟診斷 (컬럼)	49
• 景氣 얼마나 나쁜가 (記事)	50
< 6月中 >	
• 景氣는 回復되고 있는가 (社說)	51
• 景氣부진 綜合대책 착수 (記事)	54
• 景氣흐름은 長期眼目으로 (寄稿)	55
• 景氣對策 (對談)	56
< 7月中 >	
• 申秉鉉부총리의 視角...經濟現實과 政策 (對談)	57
• 景氣對策一躁急은 禁物 (社說)	58
• 制限的인 景氣對策 (社說)	60
• 下半年經濟 되살아 날까 (寄稿, 記事)	62
• 景氣浮揚策 이렇게 본다 ㊤㊤㊤ (寄稿)	63
• 不況 걸히려나①~⑦ (記事)	66
< 8月中 >	
• 失業충격 줄일 對備策을 (社說)	73
• 追豫의 民生과 景氣浮揚效果 (社說)	77
• 統計의 時差와 政策판단 (社說)	81
• 低成長의 因果 (社說)	85
< 9月中 >	
• 景氣指標는 고장 났었는가 (컬럼)	87

- 景氣轉換局面의 善用(社說) 88
- 擴大정책의 위협(社說) 92
- 성장과 안정再論(社說) 95
- 정부의 「安定固守」 실체를 벗겨보면(記事) 99
- 韓國경제 딜레마(칼럼) 100

< 10月中 >

- 景氣 내다보기 어렵다(記事) 101

< 11月中 >

- 指標의 好轉과 構造的 對應(社說) 102
- 景氣와 고용處方(BOX) 106

< 12月中 >

- 내년 景氣展望에 「官高民低」현상(記事) 107
- 景氣一指標는 호전 「體感」은 침체(記事) 108
- 激動 '85, 景氣한파에 雇傭악화(記事) 109
- '85年의 經濟一침체·失業·保護主義에 부대낀 한해(社說) 110

內容非收錄資料目錄

< 3月中 >

- 景氣下降과 對應手段의 選擇 (韓國經濟新聞, 3月14日, 社說)
- “景氣過熱걱정” 어떻게 됐나 (中央日報, 3月14日, 記事)
- 景氣動向指數(DI) 새로 開發 (한국일보, 3月24日, 記事)

< 4月中 >

- 景氣浮揚 안해도 되나 (中央日報, 4月2日, 社說)
- 따라가기 바쁜 政策 (東亞日報, 4月12日, 社說)
- 잠든 景氣…… 電子·自動車만 활기 (朝鮮日報, 4月13日, 記事)
- 各界人士 1백인이 보는 오늘의 現實 (每日經濟新聞, 4月17日, 앙케이트 調査)
- 요즘 經濟 이래도 됩니까 ①③④⑤ (東亞日報, 4月25,27,29,30日, 對談)

< 5月中 >

- 景氣·下半期엔 다소 회복된다 (中央日報, 5月1日, 記事)
- 景氣를 보는눈 (東亞日報, 5月14日, 社說)
- 최근 經濟動向과 現實 (韓國經濟新聞, 5月15日, 社說)
- 景氣動態 (朝鮮日報, 5月15日, 社說)
- 經濟成長率 최저 기록 (朝鮮日報, 5月18日, 記事)

< 6月中 >

- 景氣가 回復된다 하는데 (每日經濟新聞, 6月5日, 社說)
- 安定基調는 堅持돼야 한다 (서울신문, 6月7日, 社說)
- 景氣對策 適期와 失機 (東亞日報, 6月22日, 社說)
- 우리經濟 이래도 좋은가 (한국일보, 6月23日, 社說)
- 經濟쪽 사정 좀 생각해 주자 (서울신문, 6月23日, 記事)
- 經濟政策 「安定위주」 보완 (朝鮮日報, 6月25日, 記事)
- 「安定」고수냐 「成長」加味냐 (朝鮮日報, 6月26日, 對談)

- 過速이나 …… 低速이나 (朝鮮日報, 6月30日, 對談)
- 下半期 經濟展望 (每日經濟新聞, 6月30日, 設問調查)

< 7月中 >

- 상반기 經濟不況是非와 하반기 課題 (韓國經濟新聞, 7月2日, 記事)
- 申副總理 「제한적 景氣浮揚策」의 배경 (東亞日報, 7月2日, 記事)
- 「景氣 제한적 浮揚策」무슨 뜻입니까 (每日經濟新聞, 7月2日, 對談)
- 下半期經濟와 企業마인드 (韓國經濟新聞, 7月3日, 社說)
- 景氣와 通貨量 (中央日報, 7月6日, 社說)
- 險難한 道程 韓國經濟 어떻게 끌고가야 하나 ①~⑥ (每日經濟新聞, 7月8·9·10·11·12·13日, 對談)
- 下半期 景氣 일어날까 (中央日報, 7月13日, 社說)
- 景氣보다 根源的인 接近을 (韓國經濟新聞, 7月14日, 社說)
- 經濟活性化 方案 (朝鮮日報, 7月14日, 社說)
- 經濟認識 一致의 좋은 계기 (每日經濟新聞, 7月15日, 社說)
- 景氣對策 싸고 金利 爭點化 (韓國經濟新聞, 7月21日, 記事)
- 下半期 經濟 이렇게 풀자 ①~⑤ (中央日報, 7月9·19·24·29日, 8月5日, 寄稿)

< 8月中 >

- 失業對策과 勞使協調 (韓國經濟新聞, 8月6日, 社說)
- 減量經營과 失業對策 (朝鮮日報, 8月6日, 社說)
- 기획원, 下半期 이후 물가 綜合對策 腐心 (한국일보, 8月6日, 記事)
- 經濟動向 夏閑惰性 탓인가 (한국일보, 8月9日, 社說)
- 民生과 追更豫算 (中央日報, 8月13日, 社說)
- 景氣沈滯期에 얻은 教訓 (京鄉新聞, 8月14日, 社說)
- 3.2% 低成長 뒤에 오는 것 (韓國經濟新聞, 8月22日, 社說)
- 低成長과 責任 (東亞日報, 8月22日, 社說)
- 上半期 GNP 「低率成長」통해 본 국내 景氣 (한국일보, 8月22日, 記事)
- 上半期 3.2% 성장계기로 본 業種別 現況 (朝鮮日報, 8月22日, 記事)

- 住宅과 景氣(朝鮮日報, 8月23日, 社說)
- 金利를 내려라(中央日報, 8月23日, 社說)
- 輸出不振과 安定化(朝鮮日報, 8月28日, 社說)
- 節制있는 景氣浮揚을(每日經濟新聞, 8月28日, 社說)
- 政府·民間의 經濟討論會(韓國經濟新聞, 8月28日, 社說)

< 9月中 >

- 「大토론회」 나홀 …… 오간 얘기들(한국일보, 9月5日, 社說)
- 주택경기와 長期雇傭 대책(東亞日報, 9月6日, 社說)
- 雇傭안정과 小型住宅建設(每日經濟新聞, 9月6日, 社說)
- 住宅政策과 景氣(朝鮮日報, 9月7日, 社說)
- 經濟活力과 輸出促進(京鄉新聞, 9月7日, 社說)
- 不況의 늪 헤어날길 안 보인다(東亞日報, 9月6日, 記事)
- 設備資金 融資 신청 폭발(每日經濟新聞, 9月14日, 社說)
- 인플레이 없는 成長追求(中央日報, 9月14日, 社說)

< 10月中 >

- 景氣指標 正確度 높아져(每日經濟新聞, 10月18日, 記事)

< 11月中 >

- 低成長 失業과 責任(東亞日報, 11月20日, 社說)
- 成長 鈍化와 失業(中央日報, 11月20日, 社說)
- 地方經濟不況 몸살 ①~④(東亞日報, 11月27·28·29·30日, 記事)

< 12月中 >

- 1985韓國經濟 回顧와 새해 展望(韓國經濟新聞, 12月11日, 세미나要約)
- 내년 經濟 그렇게 장미 빛인가(中央日報, 12月18日, 記事)
- 내년 景氣 울보다도 좋아진다(朝鮮日報, 12月21日, 記事)
- 내년 10大 經濟懸案 분석(朝鮮日報, 12月21日, 記事)
- 세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을 好機(中央日報, 12月28日, 寄稿)

景氣를 보는 視角

- 好況은 樂觀主義의 根源이다 -

경기란 경제성장의 減速과 加速 현상을 물결처럼 움직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그것이 소비를 자극하여 추가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순환과정이 지속되면 일단 호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호황이 되면 기업의 기대는 높아져서 더 많은 판매를 예상하여 팽창적인 지출을 하게 되고 낙관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한때 경기침체나 회복이나를 놓고 논의가 활발했던 작금의 경기동향은 12월의 경기 지표가 발표됨으로써 확연해졌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월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달보다 2.1%, 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8% 증가했다. 선행지수의 상승폭은 지난 82년의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이후 그해 9월의 상승폭인 2%보다 높다. 지표상으로 보면 경기의 회복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부에선 왜 경기침체라는 느낌을 가졌을까. 그 이유는 대충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기지표는 평균개념으로 개발산업이나 개별기업의 호·불황을 모두 덮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비록 전반적인 경기는 상승할지라도 침체 상태에 있는 산업이나 기업이 존재하게 마련이라는 말이다. 둘째는 화폐착각을 들수 있다. 명목적인 화폐의 증가 상태를 실질소득의 증가로 착각하는 현상이다.

우리의 景氣觀은 부지불식중에 70년대 중반이후의 광란상태의 과열경기를 기준으로 경기의 호·불황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그 시대의 특징은 임금이 10~35% 오르면 물

가는 20 ~ 40 % 오르는 때였으며 근로소득자들이 자산소득자들에게 수탈을 당하던 때였다. 그리고 당시의 高인플레이 정책은 우리의 산업체질을 취약하게 만들고만 경제정책의 不在의 시대였다. 한마디로 명목소득은 올라도 실질소득의 보장이 없었던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내지 경기를 보는 기준이 70년대 중반이후의 것을 최선이라고 보는 한 지금의 경기회복도 분황수준일 수 밖에 없다. 12월중의 경기지표중 투자를 어떻게 보느냐에도 견해차이가 있다. 투자의 경우 전달과 비교하면 공업용 건축허가, 제조업 기계 受注는 줄었고 기계류 수입허가, 일반 기계류 수입품은 늘었다. 전년동기 대비로 보면 이네 네 지표는 모두 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년 동월대비로 보면 제조업 기계 수주만 늘었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줄었다.

이중 어느기준을 선택하여 보느냐에 따라 최근의 투자는 늘었다고도 할수 있고 줄었다고도 말할수 있다. 어느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문제를 보는 사람의 시각이 차이이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전망에 대한 희망과 신념이 없으면 장래에 대한 낙관도 할수 없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화와 재정 의 팽창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곧 뒤따라 高인플레이를 유발시켰다는 것이 지난날 경제운용의 실패였다면 지금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새시설, 새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인력과 물자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림으로써 잠재성장여력을 높여 장래에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행동은 장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景氣診斷에 차이 크다

- 政府 企業 각기 實相이해에 진지한 노력을 -

경기를 보는 눈에 차이가 너무 심하다. 특히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경제기획원과 企業界의 경기진단에 거리가 크다.

企業界는 지난 1,2월에 수출부진 內需침체 경기지표의 下降등을 들어 지금의 경기는 무언가 처방이 없는 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는데 대해 경제기획원은 경기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특별한 대책이 必要없다고 단정한다.

이러한 견해차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일었다. 83년 설비투자규모가 79년수준보다도 9천억이나 줄어든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질리 없다는 企業界의 주장과 물가 임금 金融비용등 企業코스트가 안정된 까닭에 안전好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정부주장이 엇갈렸다.

작년말까지는 수출과 선거경기 덕에 그런대로 넘어갔다. 그러나 올들어 수출이 계속 부진한데다 여신규제가 강화되고 국제그룹해체라는 不實企業 정리의 첫신평탄이 터지자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경기지표 자체가 종래 上向 또는 안정세에서 反轉한 것은 물론 證市를 둘러싼 각종 루머가 심리적인 위축감까지 불러 일으킨다. 이를 고비로 企業界는 절대적인 「安定」基調에 대한 反論을 활발히 펴고 나섰다. 與黨의 일부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與信規制, 非主力기업의 신고등이 결과적으로 企業의 투자를 막는 요인이므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外債元利金으로 갚아야할 돈은 元金 35억달러에 利子 44억달러등 모

두 79억달러, 원화로 6조7억원에 이른다. 빛을 갚기 위하여는 투자를 늘려 생산을 더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興信규제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돈을 풀라는 주장이다. 한경제단체가 최근 올해 총통화 증가율을 12~14%로 높여잡자고 한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다르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그러지 않아도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은데 함부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추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다. 申秉鉉부총리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경기 둔화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 특별한 부양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계의 경기진단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 여부의 치열한 攻防이 오래가는 것은 국민경제에 결코 이로울게 없다. 혼란만 쌓이고 中小企業, 일반가계 운영의 판단에 지장을 준다.

솔직히 정부는 指標경기에 얽매어서 실상과약에 둔감한 일은 없는가, 또 이로 인한 기업인들 사기에 미치는 영滯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또 기업들도 허물어진 安定, 파괴된 물가 구조위에 세워진 好況이 얼마나 虛像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나눠 질 돈의 量은 한정돼 있는데 興信규제의 대폭 축소로 中小企業등 다른 부문에 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가.

거듭 말하지만 경기를 보는 지나친 견해차 전혀 남의 일인 것처럼 자기 주장만 하는 利己는 國民經濟를 위해 自制해야 한다. 그 길은 허심탄회한 對話, 서로 남을 이해하려는 진지한 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景氣擴散指數 DI와 경기診斷

〈上〉

나... DI의... 경제...



경제실용의지식마당... DI의...

實物·指數間 「갭」해소가 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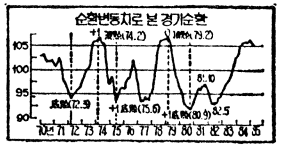


▲... 경제실용의지식마당

綜合지수 補完해活用

내년부터 投資等 20여개 개별지표로 작성

경제실용의지식마당... DI의... 경제...



... 경제실용의지식마당

... 경제실용의지식마당... DI의... 경제...

... 경제실용의지식마당... DI의... 경제...

景氣擴散指數(DI)의 경기診斷

〈下〉

擴張比率의 變動

景氣擴散指數(DI)의 變動은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金民彰
〈慶熙大學經濟學科 교수〉

- ▲日本經濟高等學府
- ▲高麗大學經濟學科 助教授
- ▲慶熙大學經濟學科 助教授
- ▲慶熙大學經濟學科 助教授
- ▲著書: 「경기變動論」 「경기豫言」 등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季節·不規則變動 제거가 關鍵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DI의 擴張比率은 DI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70년 10월의 景氣

70년 10월의 景氣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70년 10월의 景氣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70년 10월의 景氣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70년 10월의 景氣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70년 10월의 景氣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70년 10월의 景氣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70년 10월의 景氣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70년 10월의 景氣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70년 10월의 景氣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經濟敍論

經濟敍論은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經濟敍論은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經濟敍論은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經濟敍論은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經濟敍論은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經濟敍論은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圖說: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圖說: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圖說: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景氣豫言의 正確度 提高

景氣豫言의 正確度 提高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景氣豫言의 正確度 提高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景氣豫言의 正確度 提高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景氣豫言의 正確度 提高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景氣豫言의 正確度 提高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景氣豫言의 正確度 提高는 景氣의 變動을 豫言하는 重要한 指標이다.

景 氣 對 策

- 生産性直接投資 늘려야 한다 -

정부가 작성한 경기지표는 앞으로의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2월중의 경기를 알려주는 同行指數는 0.1% 증가했으나 2~3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하는 先行지수는 0.5%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기지표에서 주목할만한 현상은 투자 부문에서 공장허가 면적은 늘었으나 민간기계 受注와 기계류 수입허가가 줄었으며 대외거래면에서 수출이 줄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경기는 수출과 민간투자의 동향에 따라 감속이될 것인지 아니면 가속이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과 경기활황이 동시에 진행되던 국면은 일단 종식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듯하다. 경기후퇴의 일반적인 원인은 후발투자를 유발시키는 자극의 부족, 완전고용에 따른 임금상승, 금융긴축에 따른 지출계획의 중단등이나 그러한 원인들이 우리경제활동의 후퇴를 가져온 원인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수 없다.

우리는 지금의 경제동향을 보면서 투자동향과 경쟁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현대화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 생산성이란 근로자개인이 값을 만들어 내는 실질적인 능력이다. 그동안 투자가 많이 되었고 생산성향상 분야의 투자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투자에는 財貨의 생산에 기여하기 보다 서비스생산에 주력하는 행락산업과 임대료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건축투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력은 경제의 건강도이며 대외적으로는 수출증대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수출은 어떤가. 증가율면에서 전년의 실적을 하회하고 있으며 신용장 내도액의 증가도 둔화되고 있다. 같은 무역환경아래서 우리의 경쟁국이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

상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는 지금의 경기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투자와 경쟁력이 핵심분야라 생각한다.

안전기조라는 정책의 큰 틀 안에서 경기대책을 강구해야 할 우리의 처지로서는 금융긴축의 완화나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책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제약을 고려한다면 정책대응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행락산업과 대형건축투자는 서비스생산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재화의 생산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다.

긴축 때문에 가뜩이나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자금이 생산성과 직결되지 않는 곳으로 왜곡배분된다면 부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배양은 불가능하다. 경제정책은 한정된 자금이 효율성이 높은 곳에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 같은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해야 하며 세계와 시장면에서 그 분야의 탈세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투자분위기의 조성문제이다. 투자정책의 기본은 호황일때엔 투자를 억제하고 불황일때엔 투자를 자극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한 세계·금융면의 지원뿐 아니라 사업가들이 투자의욕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불매 정부의 與信관리시책은 경직스럽게 운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여신관리시책을 완화한 조치는 투자의 자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景氣면구름 언제 걷힐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세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세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세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세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하반기輸出에 한가닥期待

物價通貨 불안 國際收支압박도 장애

한국은행은 1985년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와 통화 불안, 그리고 국제수지 압박이 수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85년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와 통화 불안, 그리고 국제수지 압박이 수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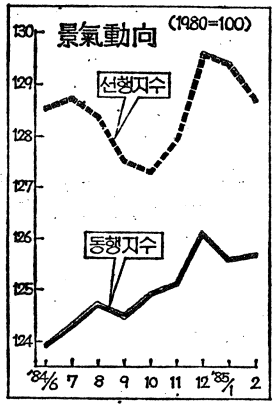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1985년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와 통화 불안, 그리고 국제수지 압박이 수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85년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와 통화 불안, 그리고 국제수지 압박이 수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85년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와 통화 불안, 그리고 국제수지 압박이 수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85년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와 통화 불안, 그리고 국제수지 압박이 수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85년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와 통화 불안, 그리고 국제수지 압박이 수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항시수(신수출주문)는 198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동행시수(동행수출)는 198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신항시수(신수출주문)는 198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동행시수(동행수출)는 198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신항시수(신수출주문)는 198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동행시수(동행수출)는 198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경제동향〉

어떻게 경제이래를 되돌리니까

申榮淑 國會議員에게 배신다

어떻게 경제이래를 되돌리니까... 申榮淑 國會議員에게 배신다... 申榮淑 國會議員에게 배신다... 申榮淑 國會議員에게 배신다...

景氣 결코 不況아니다

5共和國들이 投資할되는 데 왜 아담인지 政府서울해 賃金못을 리케 坎심한적없다



5共和國들이 投資할되는 데 왜 아담인지... 政府서울해 賃金못을 리케 坎심한적없다... 景氣 결코 不況아니다... 景氣 결코 不況아니다...

景氣 결코 不況아니다... 景氣 결코 不況아니다... 景氣 결코 不況아니다... 景氣 결코 不況아니다...

南滿洲貿易協會委員會開幕

【本報訊】南滿洲貿易協會委員會，於昨日(廿一日)下午二時，在該會會所舉行開幕典禮。出席者有該會委員長李承晚，副委員長金九，及各委員等。典禮由委員長致詞，略謂：本會之成立，旨在促進南滿洲之貿易，並謀求經濟之發展。今後將致力於各項貿易之推廣，以期達到經濟之繁榮。典禮在熱烈之氣氛中結束。



南滿洲貿易協會委員會議事會

輸出 잘되게 換率5% 引노마땅

【本報訊】南滿洲貿易協會委員會議事會，於昨日(廿一日)下午二時，在該會會所舉行開幕典禮。出席者有該會委員長李承晚，副委員長金九，及各委員等。典禮由委員長致詞，略謂：本會之成立，旨在促進南滿洲之貿易，並謀求經濟之發展。今後將致力於各項貿易之推廣，以期達到經濟之繁榮。典禮在熱烈之氣氛中結束。

貿易환경 나빠 을目標 이틀지 疑問

【本報訊】南滿洲貿易協會委員會議事會，於昨日(廿一日)下午二時，在該會會所舉行開幕典禮。出席者有該會委員長李承晚，副委員長金九，及各委員等。典禮由委員長致詞，略謂：本會之成立，旨在促進南滿洲之貿易，並謀求經濟之發展。今後將致力於各項貿易之推廣，以期達到經濟之繁榮。典禮在熱烈之氣氛中結束。



南滿洲貿易協會委員會議事會

【本報訊】南滿洲貿易協會委員會議事會，於昨日(廿一日)下午二時，在該會會所舉行開幕典禮。出席者有該會委員長李承晚，副委員長金九，及各委員等。典禮由委員長致詞，略謂：本會之成立，旨在促進南滿洲之貿易，並謀求經濟之發展。今後將致力於各項貿易之推廣，以期達到經濟之繁榮。典禮在熱烈之氣氛中結束。

【本報訊】南滿洲貿易協會委員會議事會，於昨日(廿一日)下午二時，在該會會所舉行開幕典禮。出席者有該會委員長李承晚，副委員長金九，及各委員等。典禮由委員長致詞，略謂：本會之成立，旨在促進南滿洲之貿易，並謀求經濟之發展。今後將致力於各項貿易之推廣，以期達到經濟之繁榮。典禮在熱烈之氣氛中結束。

【本報訊】南滿洲貿易協會委員會議事會，於昨日(廿一日)下午二時，在該會會所舉行開幕典禮。出席者有該會委員長李承晚，副委員長金九，及各委員等。典禮由委員長致詞，略謂：本會之成立，旨在促進南滿洲之貿易，並謀求經濟之發展。今後將致力於各項貿易之推廣，以期達到經濟之繁榮。典禮在熱烈之氣氛中結束。

【本報訊】南滿洲貿易協會委員會議事會，於昨日(廿一日)下午二時，在該會會所舉行開幕典禮。出席者有該會委員長李承晚，副委員長金九，及各委員等。典禮由委員長致詞，略謂：本會之成立，旨在促進南滿洲之貿易，並謀求經濟之發展。今後將致力於各項貿易之推廣，以期達到經濟之繁榮。典禮在熱烈之氣氛中結束。

申壽鎔 부총리 말하길 「경제」

本社 崔青林 記者 採訪

「경제」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신壽鎔(申壽鎔)의 발언이다. 신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申壽鎔 부총리 (崔青林 記者 採訪)

「代案없이 樂觀하는것 아니다」

「대안 없이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신 장관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는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후린날 있게 마련 극복 자신

退陣勇의 있지만 政策 비판 안 할 말망이 不美은 기업문제 능력 맞는 사업해야

「후린날 있게 마련」. 신 장관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는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대안 없이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신 장관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는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후린날 있게 마련」. 신 장관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는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경제」가 단순히 돈의 유통과 소비를 넘어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1985年5月8日 星期三

【本報訊】中央日報今日報導，南韓政府正考慮在未來幾個月內，將利率調低百分之二至三，以減輕企業負擔。此舉將有助於刺激經濟成長，並緩解目前的通脹壓力。政府官員表示，目前的利率水平過高，對許多中小企業造成了沉重的負擔。通過調低利率，政府希望能夠降低企業的融資成本，從而提高其競爭力。此外，政府還計劃通過其他措施，如減稅和增加政府支出，來進一步支持經濟發展。預計這些措施將使南韓的經濟在未來幾個月內出現復甦跡象。

【本報訊】南韓政府正考慮在未來幾個月內，將利率調低百分之二至三，以減輕企業負擔。此舉將有助於刺激經濟成長，並緩解目前的通脹壓力。政府官員表示，目前的利率水平過高，對許多中小企業造成了沉重的負擔。通過調低利率，政府希望能夠降低企業的融資成本，從而提高其競爭力。此外，政府還計劃通過其他措施，如減稅和增加政府支出，來進一步支持經濟發展。預計這些措施將使南韓的經濟在未來幾個月內出現復甦跡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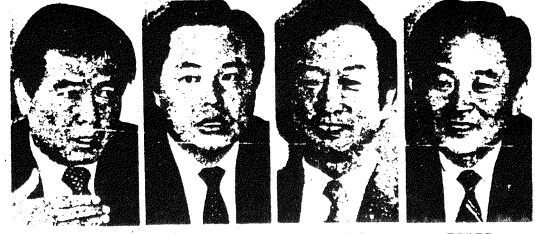
景氣 하반기부터 나아질 겁니다

【本報訊】南韓政府正考慮在未來幾個月內，將利率調低百分之二至三，以減輕企業負擔。此舉將有助於刺激經濟成長，並緩解目前的通脹壓力。政府官員表示，目前的利率水平過高，對許多中小企業造成了沉重的負擔。通過調低利率，政府希望能夠降低企業的融資成本，從而提高其競爭力。此外，政府還計劃通過其他措施，如減稅和增加政府支出，來進一步支持經濟發展。預計這些措施將使南韓的經濟在未來幾個月內出現復甦跡象。

設備投資 증가해 더 어렵게 느껴

【本報訊】南韓政府正考慮在未來幾個月內，將利率調低百分之二至三，以減輕企業負擔。此舉將有助於刺激經濟成長，並緩解目前的通脹壓力。政府官員表示，目前的利率水平過高，對許多中小企業造成了沉重的負擔。通過調低利率，政府希望能夠降低企業的融資成本，從而提高其競爭力。此外，政府還計劃通過其他措施，如減稅和增加政府支出，來進一步支持經濟發展。預計這些措施將使南韓的經濟在未來幾個月內出現復甦跡象。

【本報訊】南韓政府正考慮在未來幾個月內，將利率調低百分之二至三，以減輕企業負擔。此舉將有助於刺激經濟成長，並緩解目前的通脹壓力。政府官員表示，目前的利率水平過高，對許多中小企業造成了沉重的負擔。通過調低利率，政府希望能夠降低企業的融資成本，從而提高其競爭力。此外，政府還計劃通過其他措施，如減稅和增加政府支出，來進一步支持經濟發展。預計這些措施將使南韓的經濟在未來幾個月內出現復甦跡象。



左起：金鍾熙、李承燾、鄭東泳、李承燾

問題 있는데 없다는 식은 곤란... 실질金利수준 낮춰 企業부담 줄여야

【本報訊】南韓政府正考慮在未來幾個月內，將利率調低百分之二至三，以減輕企業負擔。此舉將有助於刺激經濟成長，並緩解目前的通脹壓力。政府官員表示，目前的利率水平過高，對許多中小企業造成了沉重的負擔。通過調低利率，政府希望能夠降低企業的融資成本，從而提高其競爭力。此外，政府還計劃通過其他措施，如減稅和增加政府支出，來進一步支持經濟發展。預計這些措施將使南韓的經濟在未來幾個月內出現復甦跡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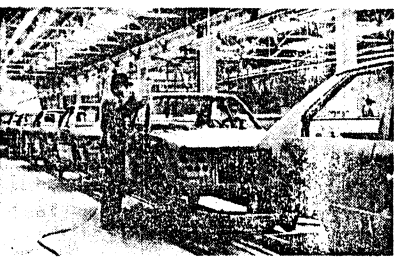
【本報訊】南韓政府正考慮在未來幾個月內，將利率調低百分之二至三，以減輕企業負擔。此舉將有助於刺激經濟成長，並緩解目前的通脹壓力。政府官員表示，目前的利率水平過高，對許多中小企業造成了沉重的負擔。通過調低利率，政府希望能夠降低企業的融資成本，從而提高其競爭力。此外，政府還計劃通過其他措施，如減稅和增加政府支出，來進一步支持經濟發展。預計這些措施將使南韓的經濟在未來幾個月內出現復甦跡象。

【本報訊】南韓政府正考慮在未來幾個月內，將利率調低百分之二至三，以減輕企業負擔。此舉將有助於刺激經濟成長，並緩解目前的通脹壓力。政府官員表示，目前的利率水平過高，對許多中小企業造成了沉重的負擔。通過調低利率，政府希望能夠降低企業的融資成本，從而提高其競爭力。此外，政府還計劃通過其他措施，如減稅和增加政府支出，來進一步支持經濟發展。預計這些措施將使南韓的經濟在未來幾個月內出現復甦跡象。

이제부터 영민기

영민기란 영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민정'이라고 하는...

景氣는 視角 따라 明暗



최근 경기를 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것 같다. 이를 저수와 감각의 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감각경기에는 주관과 심리적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사진은 송고를 위해 비공개로 되어 있는 자동차생산라인이다).

잇단데모·勞使분규·政局교착등... 「복합요인」에 企業들 위축

「밝게 보면 밝아질 수 있다」 信念건요

기업가들은 잇따르는 데모, 노동자 파업, 정부와 기업의 교착 상태...

기업가들은 밝게 보면 밝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둡다...

내需침체 벗어나고 있다

내수침체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5월 7일(토) 1~4분기 실적 발표 결과 1~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440,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440,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440,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440,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440,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440,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들은 활발한 판촉활동으로 경기 침체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세시장은 비교적 침체해 있다. 내수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들은 활발한 판촉활동으로 경기 침체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세시장은 비교적 침체해 있다. 내수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들은 활발한 판촉활동으로 경기 침체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세시장은 비교적 침체해 있다. 내수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經濟 어떤가

요즘 경제는 어떤가? 5월 7일(토) 1~4분기 실적 발표 결과 1~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440,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440,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요즘 경제는 어떤가? 5월 7일(토) 1~4분기 실적 발표 결과 1~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440,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440,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20업종중 18種이 상승커브

1 分期도 油化등은 큰폭伸張

1 分期도 油化등은 큰폭伸張

1 分期도 油化등은 큰폭伸張

1 分期도 油化등은 큰폭伸張

농업인물시민주의이다

이제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민회(농민회)가 창설되고 있다. 농민회(농민회)는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다. 농민회(농민회)는 농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다. 농민회(농민회)는 농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다.

유증경제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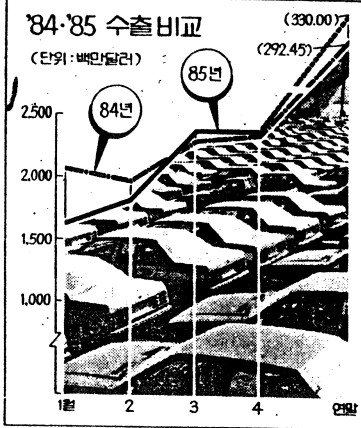
유증경제(유증경제)는 유증(유증)과 경제(경제)를 합친 말이다. 유증(유증)은 유증(유증)과 경제(경제)를 합친 말이다. 유증(유증)은 유증(유증)과 경제(경제)를 합친 말이다. 유증(유증)은 유증(유증)과 경제(경제)를 합친 말이다.

電子등호호조에 하반기엔 섬유·신발류 加勢

전자등호(電子等號)는 전자(電子)와 등호(等號)를 합친 말이다. 전자(電子)는 전자(電子)와 등호(等號)를 합친 말이다. 전자(電子)는 전자(電子)와 등호(等號)를 합친 말이다. 전자(電子)는 전자(電子)와 등호(等號)를 합친 말이다.

만들기만하면 팔리던 그 시절 鄉愁의식이 「물경기體感」이로

만들기만하면 팔리던 그 시절(만들기만하면 팔리던 그 시절)은 만들(만들)기만하면 팔리던 그 시절(만들기만하면 팔리던 그 시절)을 가리킨다. 만들(만들)기만하면 팔리던 그 시절(만들기만하면 팔리던 그 시절)은 만들(만들)기만하면 팔리던 그 시절(만들기만하면 팔리던 그 시절)을 가리킨다.



수출(수출)은 수출(수출)과 수입(수입)을 합친 말이다. 수출(수출)은 수출(수출)과 수입(수입)을 합친 말이다. 수출(수출)은 수출(수출)과 수입(수입)을 합친 말이다. 수출(수출)은 수출(수출)과 수입(수입)을 합친 말이다.

景氣 지나친 樂觀도 悲觀도 안 좋다

이해 經濟學 專長 北原 正典 氏가 韓國 經濟의 發展에 對한 見解를 表명하며 韓國 經濟의 景氣가 지나친 樂觀도 悲觀도 안 좋다고 強調했다. 北原 氏는 韓國 經濟의 發展에 對한 見解를 表명하며 韓國 經濟의 景氣가 지나친 樂觀도 悲觀도 안 좋다고 強調했다.



徐相穆 <韓國개발연구원 부원장>

近視眼的인 진단이 「중경」 불러

北原 氏는 韓國 經濟의 發展에 對한 見解를 表명하며 韓國 經濟의 景氣가 지나친 樂觀도 悲觀도 안 좋다고 強調했다. 北原 氏는 韓國 經濟의 發展에 對한 見解를 表명하며 韓國 經濟의 景氣가 지나친 樂觀도 悲觀도 안 좋다고 強調했다.

「安定」바탕위서 국제競争力 길러나가야

北原 氏는 韓國 經濟의 發展에 對한 見解를 表명하며 韓國 經濟의 景氣가 지나친 樂觀도 悲觀도 안 좋다고 強調했다. 北原 氏는 韓國 經濟의 發展에 對한 見解를 表명하며 韓國 經濟의 景氣가 지나친 樂觀도 悲觀도 안 좋다고 強調했다.

경기가 안정정착효과있다. 그렇기때문에 그리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극히 민감히 고수할 필요성이 있을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중성이 시나 인플레이션의 대폭적인 후퇴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나타 내기 때문이다. 이시점에서 경제의 실상을 규명하고, 안정정착 효과를 점검해 보는 일이 시급할 듯 하다. 그렇다면, 노후 노동자들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경제 어디로 가는가

'不況합창' 景氣나 '安定이나' 감림길에

경제부 장관은 9일 '경제성장률'이 '안정'이 되고 '불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황합창'이 '안정'이 되고 '불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통스럽지만 '노동'은 '실업'이 증가하는 길에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안정'이 되고 '불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은 '실업'이 증가하는 길에 있다.

「경제」의 현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안정'이 되고 '불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현실은 '불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안정'이 되고 '불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현실은 '불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浮揚策'뒤엔 '인플레이션' 있다, '警戒'도

고통스럽지만 '노동'은 '실업'이 증가하는 길에 있다. 그러나 '노동'은 '실업'이 증가하는 길에 있다.

「통화」의 '부' 현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안정'이 되고 '불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의 현실은 '부'가 현실이다.

실업률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안정'이 되고 '불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은 '실업'이 증가하는 길에 있다.

經濟인물로가득

<2>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인물들은, 80년대 초반의 경제인물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80년대 초반의 경제인물들은, 대부분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인물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80년대 초반의 경제인물들은, 대부분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인물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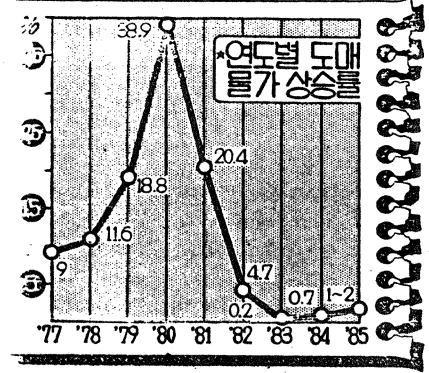
好況중독에 正常軌道 인식못해

한국 경제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인물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80년대 초반의 경제인물들은, 대부분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인물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80년대 초반의 경제인물들은, 대부분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인물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投機재연되면 경제후란 物價安定과 수출경쟁력향상

企業의 새로운 대응 脫「인플레이션」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기업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기업의 수익률이 높아진다.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經濟 業績가둑

<3>

由總局公佈的4月工業生產指數顯示，4月份工業生產指數為102.7，較3月份增長0.3%。這是自去年12月份以來，工業生產指數連續第4個月增長。

在4月份工業生產指數中，輕工業生產指數為103.2，較3月份增長0.4%；重工業生產指數為102.2，較3月份增長0.2%。

在4月份工業生產指數中，機械工業生產指數為103.5，較3月份增長0.5%；電力工業生產指數為102.5，較3月份增長0.3%；化學工業生產指數為102.0，較3月份增長0.2%；其他工業生產指數為102.0，較3月份增長0.2%。

1. 4月份，由於機械工業生產指數增長0.5%，電力工業生產指數增長0.3%，化學工業生產指數增長0.2%，其他工業生產指數增長0.2%，使得工業生產指數增長0.3%。

在4月份工業生產指數中，機械工業生產指數為103.5，較3月份增長0.5%；電力工業生產指數為102.5，較3月份增長0.3%；化學工業生產指數為102.0，較3月份增長0.2%；其他工業生產指數為102.0，較3月份增長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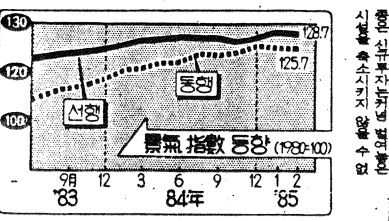
在4月份工業生產指數中，機械工業生產指數為103.5，較3月份增長0.5%；電力工業生產指數為102.5，較3月份增長0.3%；化學工業生產指數為102.0，較3月份增長0.2%；其他工業生產指數為102.0，較3月份增長0.2%。

現場實況이 心理不況 부추겨

設備投資을 보는는 業界·官界 서로 엇갈려

4月份，由於現場實況不佳，使得心理不況更加嚴重。在設備投資方面，業界和官界存在分歧。

在4月份，由於現場實況不佳，使得心理不況更加嚴重。在設備投資方面，業界和官界存在分歧。



COOLING 지그의 實錄 기록

1985년 5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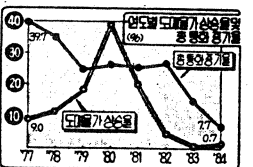
經濟 工業部刊物

< 4 >

21. 5월 21일 1955년 5월 21일 21. 5월 21일 1955년 5월 21일

건설열풍에 '돈다령' 추임새

건설열풍에 '돈다령' 추임새... 건설열풍에 '돈다령' 추임새... 건설열풍에 '돈다령' 추임새...



건설열풍에 '돈다령' 추임새... 건설열풍에 '돈다령' 추임새... 건설열풍에 '돈다령' 추임새...

“擴大정책이면 뭐가나쁘냐, 이 ‘돈다령’이면 헛바만 채운다.”

“擴大정책이면 뭐가나쁘냐, 이 ‘돈다령’이면 헛바만 채운다.”... “擴大정책이면 뭐가나쁘냐, 이 ‘돈다령’이면 헛바만 채운다.”...

이것이 바로 '건설열풍'의 '돈다령'이다

經濟 日 報 特 刊

本報特刊 經濟 日 報 特 刊 內 容 詳 盡 詳 見 報 內 特 刊 內 容 詳 盡 詳 見 報 內

DO-經濟 日 報 特 刊 內 容 詳 盡 詳 見 報 內

70年代 失 速 斷 絕 最 後 一 擊

【本報北京15日電】中國經濟在70年代失速，斷絕最後一擊。據悉，中國政府已決定採取一系列措施，以穩定經濟局勢。這些措施包括：增加糧食生產、改善交通運輸、以及加強對外貿易。政府表示，這些措施將有助於提高國民生活水平，並促進經濟的長期發展。



圖為中國政府官員在會議中討論經濟政策。

“安定”時期 痛苦 已 開 始

【本報北京15日電】中國政府官員在會議中討論經濟政策。與此同時，民間對經濟局勢的擔憂日益增加。許多人認為，政府的政策並不能真正解決問題，經濟的“安定”時期可能已經開始，這將帶來更多的痛苦。

「福利」心理 仍 難 成 造 成 的 阻 礙

【本報北京15日電】中國政府官員在會議中討論經濟政策。此外，社會心理學專家指出，「福利」心理仍然是造成經濟發展阻礙的主要原因。這種心理導致了消費者的不理性行為，進而影響了市場的穩定和增長。

經濟 業론가들

<6>

저희가 저의 사업에 대한 생각은... (Introductory text for the economic column)

경제의 발전은... (Continuation of the economic column)

경제의 발전은... (Continuation of the economic column)

名藥보다 診脈이 중요하다

경쟁은 인간성의 승패... (Text for the 'Pulse Diagnosis' advertisement)



景氣전망은 競技보듯... 모두 일어나면 앞서서 구경못해

인도의 경제는... (Introductory text for the economic outlook column)

경제전망은... (Main text of the economic outlook column)

경제전망은... (Main text of the economic outlook column)

경제전망은... (Main text of the economic outlook column)

경제전망은... (Main text of the economic outlook column)

경제전망은... (Main text of the economic outlook column)

볼렌 濟大주장계, 빛지면 끝장

볼렌의 주장에... (Text for the 'Bolren' advertisement)

最近의 景氣先行指數

景氣論爭이 다시 加熱되고있는 가운데 景氣先行指數가 계속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재의 景氣局面을 安定的 好況圈으로 보고있는 정부는 가까운 장래의 景氣수준을 豫示하는 先行指數의 지속적 下落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바는 단순한 景氣判斷의 차이나 指標해석의 相違자체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相克的 견해차이가 지속될 경우 자칫 현실경제라는 초점을 벗어나 指標공박으로 전락하고 그로인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놓칠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政府관계자들은 指標過信에서 벗어나 경제의 實體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政策的 判斷이 언제나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經濟指標의 변화를 언제나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은 當爲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같은 경제 지표의 의미가 中·短期에서는 의외로 제한적 측면을 반영할뿐이라는 경험도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景氣局面을 安定的 好況圈으로 보는 정부판단의 주된 근거가 景氣綜合指數를 포함한 몇개의 總量指標인듯하나 이 또한 시간적·상대적 변화와 總計的·概念的 판단자료일뿐 경제의 구조적 측면이나 개별 산업의 실체와 偏差를 가지는 경우가 더 많은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景氣現況과 관련한 최대의 문제점은 절대적인 경기수준이 아니라 민간이 수출을 포함한 企業展望을 비판적으로 보고있으며 그로인한 投資분위기의 위축과 기업환경의 硬化가 진전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은 불투명한 경제환경은 비록 현재의 景氣水準이 安定圈이라 하더라도 조만간 景氣後退가 더욱 확산되거나 不況局面의 進入을 재촉할 따

롭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지표의 변화에 가리워진 민간경제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노력을 우선 먼저 해야할 것이다.

個別指標에서 볼때 관심을 가져야할 부문은 投資指標와 國際收支관계이나 前者는 울들어 계속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민간건축과 기계류수입, 民間기계受注, 公업용 건축허가 등은 대체적으로 전년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물론 지난해 同期의 이례적인 好況을 고려에 넣더라도 投資指標의 低迷는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겪고있는 수출의 어려움이 外生的 市場條件의 악화뿐만 아니라 內的인 生産性과 경쟁요인의 악화에 더 크게 영향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生産性과 기술개발을 겨냥한 設備의 效率化와 改替投資가 시급한 點점이다.

이문제는 단순한 景氣對策의 次元이 아닌 産業效率化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책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의 애로가 景氣에 나쁘게 작용하고 있는 부문을 개선, 실질적인 금융완화와 중소기업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金融채널을 다시 點檢하는 일도 金요한 과제가 될것이다.

景氣論爭과 安定化시책

政策基調 따질 各論的 논의 시급

1

앞으로 2~3개월후의 경기동향을 豫告해주는 先行指數가 울들어 석달째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지난 1월 0.1%가 하락한데 이어 2월에 0.5%가 떨어진 경기선행지수는 3월에도 다시 0.7%하락했다. 선행지수의 落幅이 갈수록 커지고있기때문에 景氣展望이 不安하다는 논의가 다시금 일고있다. 선행지수의 추세로 보아 상반기안에는 물론 하반기까지에도 경기는 결코 낙관할수 없다는 논의이다.

先行指數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 가운데 지난 1.4분기중 총유동성과 통화를 비롯 제조업 재고율지수, 민간기계수주액 등은 나아졌지만 수출을 비롯 건축허가면적 종합株價指數가 악화됐을 뿐만아니라 제조업의 평균근로시간도 줄었다. 다만 3월중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약간 호조를 보여 한가닥의 기대를 걸게 됐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행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생산·출하·가동률등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경기동행지수가 연 2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점을들어 현재의 경기는 아직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또 4월부터 수출신용장 내도액도 늘어나고 있어 다음달에는 선행지수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輸出競爭力을 보강하고 設備投資를 촉진시켜 나갈경우 국내경기는 적어도 2.4분기이후엔 회복될것으로 낙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換率도 그동안의 거듭된 상승

결과 지난날의 원貨의 高評價가 충분히 시정되었으며 수출금융의 달러당 용자단가인상 국 산 수출용원자재 가격인하 수출설비자금의 확대등 수출지원조치를 취함으로써 그효과는 3 월부터 나타나고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

때마침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당면경제과제와 政策對應」이라는 題下의 討論會 가 열렸다. 이자리에서 開陳된 各제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역시 지금의 景氣는 좋은 편이라 기 보다는 나쁜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景氣가 다소 나쁜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수출의 회복에 따라 차츰 景氣도 나아진다는 展望이 多數派를 차지했으며 실령 앞으로의 景氣가 나빠진다하더라도 지금의 安定化政策 그리고 自律및 競爭原理에 입각한 經濟 運用과 産業購造 調整政策은 바꿀수 없다는 의견이 역시 多數派를 차지했다.

지금까지의 景氣論爭은 괜찮다는 정부와 나쁘다는 企業간의 現狀認識論爭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KDI에서의 이번 논의는 첫째 다소 나쁜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나아진다고 합의함으로써 認識差가 한결음 좁아진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라 할수 있고 둘째 설사 앞으로 景氣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安定化시책을 깨면서까지 景氣對策은 취할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景氣論爭을 對策의 分野에까지 끌어올린 공이 있다 하겠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安定政策은 꺾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選擇임엔 틀림없다. 安定化시책을 견지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安定化시책을 꺾수없다면 처음부터 무의미해 진다. 따라서 安定堅持論은 景氣對策 의 요구를 봉쇄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실제로 어떤정책이 안정을 깨는 政策인지에 관해서는 더 충분히 논쟁되어야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를들어 換率을 더올리는것 金利를 내리는것 通貨供給을 지금보다 더 擴大 하는것은 일견安定시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인 것으로 여겨질수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검증해보면 반드시 안정을 깨는것만인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수있다.

최근 실제 通貨공급이 상당한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또 換率도 크게 올랐는데 그것이 즉각 物價上昇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것을 무엇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 物價는 輸出이 잘될때 따라 될 위험이 크다고 여겨진다. 輸出이 잘안되고 따라서 需給의 갭이 클때는 여간해서 물가는 영향을 받지않을것이다. 安定化시책은 물론 政策基調로서 堅持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다해서 그것이 곧 壓殺的인 통화긴축금리의 인상 환율현실화의 억제 임금인상의 억제등을 모두 정당화하는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經濟政策엔 정답이란 있을수 없다는 인식이 우선 확산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안정엔 안정대로의 代償이 있는것이며 그代償의 보상을 요구하는 계층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3

비록 景氣가 나쁘다고 해도 選擇의 범위가 좁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사 지금의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되더라도 內需를 부추길수는 없다. 景氣浮揚策이 있다면 수출지원이 돼야한다는것도 분명하다.

內需를 일으킨다면 이것이 우리가 안고있는 커다란 難題인 國際收支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것은 분명하다.

수출촉진은 景氣對策으로서 보다는 국제수지대책, 혹은 外債절감대책으로서의 절박성이 더한 것으로 본다. 물론 수출은 海外市場의 변동에의해 보다 큰영향을 받는것이 사실이다. 美國의 수입이 줄고 유럽과 日本의 수입이 준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출촉진책을 편다해도 실제 수출증진효과는 크지 못할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초이후 우리수출이 부진한것은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며 경쟁국인 臺灣이나 日本에도 공통되는 현상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설명은 수출이 부진함으로써 입게되는 타격의 정도가 우리의 경우 日本이나 홍콩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심대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있다.

輸出논의의 外延線상에 있는 外債문제만해도 그렇다. 많은 사람이 상환능력범위내의 外債

는 큰저정거리가 아니라는 태도를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능력은 곧 수출이란 점 그리고 그수출의 전망이 밝지못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려들지 않고 있다. 수출을 근원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은 곧 물가안정이라는 설명이 몇년전에 가해졌다. 그러나 몇년째 유래없는 물가안정을 경험한 우리는 그것이 곧 輸出증가와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輸出을 보다 늘리기 위한 지원정책, 그 정책과 安定化정책의 相關관계 등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더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 이런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보다 開放된 思考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가능한 또 시험해볼만한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安定의 자로 제어 논의조차 배격하려는 풍조는 모처럼 進一步한 景氣論爭을 다시금 뒷걸음질치게하는 硬直된 태도라고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總論은 그렇다치더라도 各論을 일일이 점검해보는 보다 開放的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經濟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經濟外話

趙 錫 錫
〈編輯 趙錫錫〉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文化的 갈증 풀어 주는 것도 방법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경제가 좋아서 안 좋은데 「逆의 發想」을

經濟 현실 診斷의相反

「經濟 현실」 진단의 相反은 經濟 현실의 眞實性을 疑念케 하는 一因이다. 經濟 현실의 眞實性은 經濟 현실의 眞實性을 疑念케 하는 一因이다. 經濟 현실의 眞實性은 經濟 현실의 眞實性을 疑念케 하는 一因이다.

한국開發研究院 경제토론회

한국開發研究院(한국개발연구원)가 15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經濟 현실」 진단의 相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토론회의 일환으로, 「經濟 현실」 진단의 相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輸出 下半年회복 걱정없다 設備投資활발해 「安定」 지속

정 부

정부는 15일 발표한 「198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수출 회복에 대해 "1985년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의 안정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輸出·內需 침체로 不況심각 設備投資기피 景氣는 바닥

民 間

민간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수출과 내수 시장의 침체로 인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경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不況인가 景氣 好況인가

企劃院企劃局長 康奉均씨



企劃院企劃局長 康奉均

○ 1985년 5월 14일 기준
 1985년 5월 14일 기준,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띠고 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商議院商議理事 朴容相氏



商議院商議理事 朴容相

○ 1985년 5월 14일 기준
 1985년 5월 14일 기준,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띠고 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景氣 큰起伏속 「好轉」

○ 1985년 5월 14일 기준
 1985년 5월 14일 기준,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띠고 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採算性 나빠不振實感

○ 1985년 5월 14일 기준
 1985년 5월 14일 기준,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띠고 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성장속도鈍化면 그 자체가 不況

○ 1985년 5월 14일 기준
 1985년 5월 14일 기준,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띠고 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1985년 5월 14일 기준
 1985년 5월 14일 기준,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띠고 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자에 집착 말고 전체보는 均衡感을

○ 1985년 5월 14일 기준
 1985년 5월 14일 기준,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띠고 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指數경기

實感경기

왜 차이가 나

企劃院 통계국장 慎濶幸씨



企劃院 통계국장 慎濶幸

통계청의 경제지표가 실감경기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제지표'가 '실감경기'보다 앞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제지표는 생산, 판매, 수출, 수입 등 경제활동의 양적 변화를 측정하는 반면, 실감경기는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고통이나 여유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표가 실감경기보다 앞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22개 중요지표 근거 분석

경제지표 22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 생산액'이다. 이는 경제활동의 핵심을 이루며, 다른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수출액'과 '수입액'도 중요한 지표로, 이는 국가의 무역 상황을 반영한다. '고용률'과 '실업률'도 실감경기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

제조업 생산액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이는 소비재와 투자재의 생산을 포함하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수출액의 증가는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실업률의 감소는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현장과 當局數値인時差

현장에서의 실감경기와 통계청의 수치를 비교하면,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감이 느껴지지만 통계청은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時差' 때문이며, 통계청은 현장보다 앞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大用商事 사장 朴用大씨



大用商事 사장 朴用大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감이 느껴지지만 통계청은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時差' 때문이며, 통계청은 현장보다 앞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統計外的 요인도 判讀해야

통계지표 외에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사회적 불안, 국제정세 변화 등은 통계지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계지표만으로는 경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現場계발 再點檢 필요

현장에서의 경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계지표와 비교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는 '現場계발'을 통해 경제의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고, '再點檢'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종합指數에 구조적 결함... 외부느낌과 일치한 接近방법을

종합지수에는 구조적 결함이 있어, 외부에서의 느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수의 구성 요소와 가중치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接近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지수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全體와 部分, 차이가 심한데

企劃院經濟政策局長 金英泰氏



金英泰氏

金氏는 企劃院 經濟政策局長으로서 國家의 經濟政策에 關한 重要한 地位에 在하여 國家의 經濟發展에 對한 重要한 貢獻을 爲한 功勞가 甚大하다.

轉換期的 現象... 큰 문제 제 없어

金氏는 國家의 經濟發展이 轉換期에 入하여 國家의 經濟發展에 對한 重要한 貢獻을 爲한 功勞가 甚大하다. 轉換期의 現象은 國家의 經濟發展에 對한 重要한 貢獻을 爲한 功勞가 甚大하다.

中企協同조합副會長 韓在烈氏



韓在烈氏

韓氏는 中企協同조합 副會長으로서 國家의 經濟發展에 對한 重要한 貢獻을 爲한 功勞가 甚大하다.

個別·특수사정 政策 배려를

韓氏는 國家의 經濟發展에 對한 重要한 貢獻을 爲한 功勞가 甚大하다. 個別·특수사정 政策 배려를 國家의 經濟發展에 對한 重要한 貢獻을 爲한 功勞가 甚大하다.

부분간 不均衡으로 不況感 커

金氏는 國家의 經濟發展이 不均衡을 示하여 不況感을 示하고 있다. 部分간 不均衡은 國家의 經濟發展에 對한 重要한 貢獻을 爲한 功勞가 甚大하다.

공정임금 설명

공정임금의 說明은 國家의 經濟發展에 對한 重要한 貢獻을 爲한 功勞가 甚大하다. 公定賃金은 國家의 經濟發展에 對한 重要한 貢獻을 爲한 功勞가 甚大하다.

一部만 급신장이 指數는 「全體가好況」될수도

金氏는 一部만 급신장이 指數는 「全體가好況」될 수도 있다. 一部만 급신장은 國家의 經濟發展에 對한 重要한 貢獻을 爲한 功勞가 甚大하다.

景氣부진 原因은 무엇인가

商工部 商易국장 辛國煥



辛國煥

景氣부진 원인은 무엇인가
辛國煥

海外여건나쁘고 構造문제」검쳐

수출이 어렵고 해외여건이 나빠서
景氣부진 원인은 무엇인가
辛國煥



具石煥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具石煥

「總量지표」벗고 供給측면고려

총량지표 벗어나고 공급측면 고려
具石煥

확실한 비전提示 새戰略 필요

확실한 비전提示 새戰略 필요
경제전반 活氣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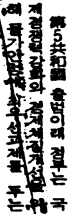


경제전반 活氣없어
확실한 비전提示 새戰略 필요

【주필의견】

安定化施策 얻은것과 잃은것

企劃院 物價政策子金仁浩시



企劃院 物價政策子金仁浩시

물가안정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痼疾의 인플레이션心理 크게 억제



金仁浩시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全權專任의 申 華 植시



申華植시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緊縮이 成長잠재력 弱화블러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비능률·不合理 제거로 內實化를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안정의 濫作用 새문답 밝히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不實기업 多發·고용 不安定에 輸出경쟁력도 下落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물가안정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경제성장은 어떻게 될까

産額증대 洪性叔



洪性叔氏

본인 생산 증대 노력에 힘입어 생산액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設備투자擴大 전망... 達成 무난

전망이 밝은 전망이다.

본인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액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액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漢陽大교수 金迪 敎士



金迪敎士

본인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액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與件 불확실로 鈍化 추세 예상

전망이 밝은 전망이다.

본인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액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액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7.5% 성장 목표 달성 어려울 듯

본인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액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액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景氣전망 불투명 「變數好轉」에 기대

본인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액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景氣動向에 대한 對應策은

企劃院 企劃部長 康奉均시



康奉均시

輸出公債 능력키우는데 注力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 경제는 안정되고, 외환은 확보된다. 그러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 공채를 발행하여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韓國經濟學者 黃正顯시



黃正顯시

通貨신축은 投資촉진 途로

통화신축은 투자촉진에 유리하다. 통화신축을 하면 물가가 안정되고, 기업의 투자욕구가 증가한다. 또한 통화신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투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이는 결국 국내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업을 줄여준다. 그러나 통화신축을 할 때는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올해 계획」이라도 達成 노력

올해 계획이라도 달성 노력.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정부는 올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실업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問題 解決 途 無다

문제 해결의 길은 없다. 현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의 길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各界선 不均衡 不均衡 國際收支惡化 等 指摘

각계선 불균형, 국제수지 악화 등 지적.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의 길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민의 經濟診斷

인민경제는 1955년 5월 25일 현재까지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우해 「꽃등고비」 플자는 건가

浮揚策은 인플레이션心理만 부채질



朴英哲

인민경제는 1955년 5월 25일 현재까지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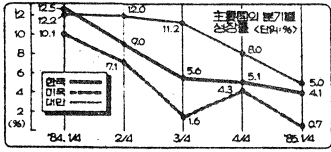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인민경제는 1954년 10월 1일 이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景氣 얼마나 나쁜가

정부예산 하반기에 줄인다지만...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안가 큰 문제

198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그러나 이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정부 예산의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어 있어,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안가는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예산을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어 있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돈을 생산적인 곳으로 안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減量經營 등으로 失業 늘어나

기업들이 생산량 감축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수요 위축으로 인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수요 위축으로 인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景氣는 回復되고 있는가

(一)

申秉鉉경제기획원장관은 5월중 經濟動向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景氣가 回復되고 있다고 分析했다.

그동안 景氣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정부측의 報告대로 景氣가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사실 經濟의 好轉을 바라는 마음은 經濟政策을 운용하는 정부나 經濟活動에 종사하는 企業·家計할 것 없이 매한가지며 실지로 經濟가 앞으로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누구나 갈망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같은 申장관의 景氣診斷은 前月에 비해 증가폭이 늘어난 同行指數의 꾸준한 上昇과 年初以來 계속 下落勢에 있던 先行指數의 대폭상승에 근거를 두고 있다.

經濟企劃院이 발표한 景氣指標는 지난 1월 마이너스 0.4%, 2~3월에 플러스 0.1% 수준에서 맴돌고 있던 同行指數가 4월들어 0.6% 상승한데다 올들어 前月보다 마이너스 0.1%(1월) 마이너스 0.8%(2~3월)로 연 3개월 계속 내리막길에 있던 先行指數가 4월들어 1.5% 폭의 큰 증가세로 돌아섰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景氣의 變動을 나타내는 순환變動值도 3개월간 계속된 下落에서 反轉하여 105.2로 올라 景氣가 安定圈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景氣指標를 뒷받침하는 生産·出荷·在庫·輸出·投資·소비·고용·通貨·金融 등 個別指標에 있어서도 약간씩 改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成長率은 前年同期的 12.5% 보다 무려 8.4% 포인트가 暴落한 4.1%이었다. 이는 우리 景氣와 成長의 牽引車役割을 했던 輸出이 울들어 크게 不振한데서 일어난 것이다. 申장관은 1·4분기에 0.7%로 떨어진 美國의 成長率이 回復될 2·4분기 이후에는 우리 輸出도 다시 증가될 수 있다는 前提 아래 올해의 우리 成長率도 7.5%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輸出指標 하나만 보더라도 景氣展望은 그렇게 樂觀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있다. 지난 4월까지 前年同期 보다 5.5%나 감소됐던 輸出증가율이 5월 들어서는 前年同期對比 0.8% 증가로 好轉되긴 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前年同期에 비해서는 4.1%나 떨어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先行指標로서의 輸出信用狀來到에 있어서는 5월말 기준으로 前年同期 증가폭 보다 6.3%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二)

問題는 앞으로의 景氣가 과연 이러한 政府의 診斷대로 上昇勢를 계속하여 國際收支·物價의 安定을 유지하는 속에서 올해 목표한 7.5%의 成長率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게다가 중요한 점은, 우리 輸出의 증가를 가능케 하는 美國 등 주요국의 今後 景氣가 극히 不透明하다는 사실이다. 國內景氣 回復의 有力한 前提가 되는 輸出增加가 不透明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政府의 景氣診斷은 고식적인 樂觀論的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輸出部門말고도 우리 경제에는 앞으로의 景氣風向을 左右하는 문제점들이 許多하게 남아 있음을 우리는 度外視 할 수 없다.

外債가 4월말 현재 4백 43억 달러로 작년말에 비해 12억 달러 늘었다.

國際收支赤字도 4월말로 7억 3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年間目標 5억~ 7억달러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VTR 등 電子部門, 自動車 등 扎实的 成長을 나타내고 있는 好況部門이 있지만 그 한편에서 한때 成長의 主役이 됐던 造船·海外建設·海運部門이 受注격감·稼働率低下·收支惡化로 構造不況色을 짙게 하고 있는가 하면 地方經濟와 中小企業의 주업종인 新발류·섬유산업 등이 輸出감퇴의 영향을 입어 斜陽化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景氣가 「好況的 安定圈」에 있다는 政府의 되풀이 되는 樂觀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景氣를 「침체局面」에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狀況을 打開하기 위해 따로 景氣浮揚策을 쓸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金融緩和나 景氣促進策이 그러지 않아도 惡化되고 있는 國際收支에 追加的인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그동안 다져졌다는 安定基調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景氣診斷과 處方이 맞는지의 與否는 앞으로 나타날 經濟의 現實이 證明하겠지만 한가지 分명한 것은 우리 경제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成長制約的인 어두운 要因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經濟의 安定的 成長은 不可能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樂觀論과 悲觀論의 두 입장을 초월해서 우리 경제의 現實과 將來를 보다 客觀的으로 診斷하고 효과적인 對策을 세우는데 政府와 民間이 共同의 노력과 준비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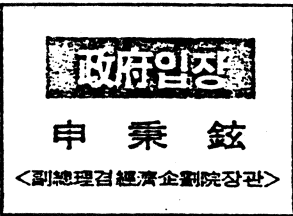
景氣부진 綜合대책 착수

政府 하반기 國際수지 방어에 초점

【서울 20일】정부는 1985년 하반기에 걸쳐 경제안정화 및 경기부흥을 위한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제수지 방어에 중점을 두는 한편, 수출 확대와 내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하반기 경기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하반기에 걸쳐 경제안정화 및 경기부흥을 위한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제수지 방어에 중점을 두는 한편, 수출 확대와 내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 (Introductory text for the official statement)



대한민국 정부... (Continuation of the official statement)



◆ 申 奉 勲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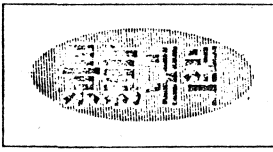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부... (Text block related to the author's bio or the article's context)

景氣이름이 長期眼目이름

不振이정이나 危機·판타지 이름

Main body of the article discussing economic conditions and termi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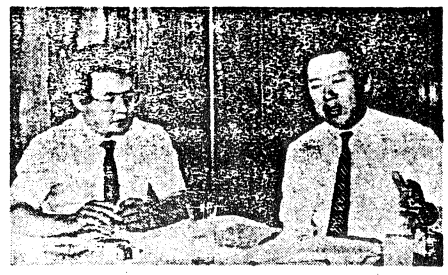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economic terms.



民生國會... 本報...

時對平康 處方也 斷診

時對平康... 處方也... 斷診... 本報...



某(右)與某(左)...

『危機』投資的『回生』

『危機』投資的『回生』... 本報...

本報... 投資的『回生』... 危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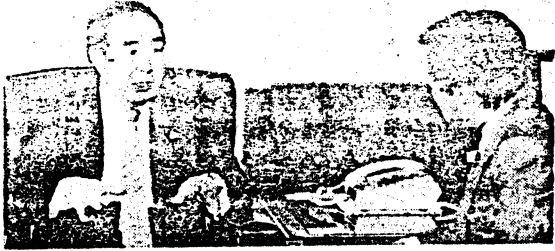
本報... 投資的『回生』... 危機...

미국의 대외정책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익 수호, 세계평화 유지, 자유민주주의 확대에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익 수호, 세계평화 유지, 자유민주주의 확대에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익 수호, 세계평화 유지, 자유민주주의 확대에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어떤 장벽보다도 불신이 무섭다

景氣활성화 樂觀... 다른 補藥은 안 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불신이라는 장벽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다른 어떤 장벽보다도 불신은 무섭다. 정부는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익 수호, 세계평화 유지, 자유민주주의 확대에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익 수호, 세계평화 유지, 자유민주주의 확대에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時流에 영합 安定고삐 늦출생각없어

정부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경제안정을 위한 고삐를 늦추는 생각 없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정부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경제안정을 위한 고삐를 늦추는 생각 없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景氣대책 - 躁急은 禁物

- 觀望하는 태도도 훌륭한 대책 -

지금의 경기동태를 두고서야 어느 누구도 「安定的 好況국면」임을 내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의 경기를 진단하는 指標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건간에 경제가 풀이 죽어 있다는데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벌써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자가 「安定的 好況국면」임을 강변해 온데는 사실은 정체해 있는 경기동태를 몰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는데 따른 정부의 고통스런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옳을 것이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지배적으로는 輸出의 후퇴에 따른 것이다. 올들어 輸出은 언초부터 계속 내리막길이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달려 6월말 현재로는 작년 동기대비 4%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하긴 정부가 輸出의 위축을 內需增大로 메우기로 하고 需要振作을 꾀해 나왔더라면 景氣양상은 훨씬 달라질 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內需增大는 그대로 輸入增大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이다. 그렇지 않아도 外債규모가 세계 3~4위를 다투는 위협적인 수준에 있다. 輸入增大=국제수지악화로 귀결되는 內需增大시책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輸出은 下半期에도 반드시 고무적이지는 못하다. 美國-日本 등의 경제성장률이 下半期엔 다소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長期的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경기下降국면이 지속되리라는 것이 산업연구원(KIET)의 분석이다. 거기에 보호무역주의가

난무하는 사태까지가 겹쳐, 輸出增大는 비록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기대를 걸만한 것은 못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동태는 당장 활짝 피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것으로 여긴다. 함부로 內需증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앞에 언급한 바 있지만, 內需촉진책을 강구하더라도 그 효과는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은 安定的 好況국면이니 內需증대의 국제수지 악화효과니 하는 것을 정부가 내세워 오면서도 실지로는 상당한 정도로 內需진작책을 강구해 온 것이 그 동안의 숨김없는 실정이었다. 韓銀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6월중 총통화는 평잔기준으로 작년 동기대비 12.9%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5월의 11.3%보다 1.6%포인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시중의 자금사정은 상당히 윤택한 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景氣동태에는 생각과 같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딱한 것이다.

물론 輸出증대를 위해 정부는 할만큼 다 하고 있다. 換率을 올리고 달러당 融資單價를 높였으며, 輸出용 시설투자의 貸出을 늘렸다. 반드시 충분하지는 못할 망정 과히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內需증대책으로 通貨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안팎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인데, 물론 닷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輸出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잘 될 수가 없고, 內需증대는 外債증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때는 對內外對策에 유감없기를 기하면서도 너무 거기에 조급할 것이 아니라, 一步 후퇴하여 事態를 觀望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景氣浮揚을 위한 綜合경제대책을 구상중이라는 보도에 접하여 거기에 대한 몇마디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 둔다.

制限的인 景氣對策

- 金利引下・減稅政策 考慮해 볼 만하다 -

정부가 발표한 경기종합대책은 예상했던것 보다 폭이 좁다. 경기활성화를 겨냥하면서도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두가지의 상충되는 정책명제를 놓고 정부는 '역시' 신중한 대응책을 강구한 셈이다.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경기대책은 어차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기업쪽에서는 보다 과감한 경기대책을 바랐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보다 과감한 경기대책은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안정유지 쪽만을 고집하게 될 때 성장 둔화라는 문제가 야기된다. 지금의 경기후퇴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성장에 따른 失業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한적인 경기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경기후퇴는 수출둔화와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진행되는 측면이 짙다. 수출둔화는 세계경기의 후퇴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 보다 심각한 원인은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다분히 구조적인 문제이다. 구조적으로 약한 산업체질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적된다. 그러므로 보다 근원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사분규·학생소요와 정치불안 등 경제외적 요소도 경기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요인들은 경제정책으로 해결을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점들을 고려해 보면 정부의 경기대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명백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쪽 사정이 어렵다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다.

기업들은 안정정착기의 몸살을 앓고있다. 실질금리 부담,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은 경기후퇴기의 기업들에게는 경영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묘방이 없을지에 대한 정책 대안은 계속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은 金利정책과 稅制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의 금리수준은 물가상승을 배제하고 보면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다.

유동자금이 제1금융권으로 환류되었다고 판단될 때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수준의 인하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세제쪽에서는 세출삭감을 전제로 한 減稅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정책은 부진한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감세정책을 추진하려면 우선 정부의 기능부터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운용을 명실상부하게 민간이 주도케 하려면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간섭부터 줄여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를 줄인다면 一舉兩得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오늘의 경제형편은 결코 정책당국만의 노력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다.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풀어나갈 문제이다.

하반기 經濟 되살아날까

7월 15일 1985년 11월 15일까지 4개월간 계속되는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제가 좀더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시적 浮揚 아닌 잠재력 키워 생산적 投資 촉진에 최대 力 點

경제기획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밝힌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제가 좀더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 차장 김기환

비긴 期 待 年 初 부 터 실 체

경제기획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밝힌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제가 좀더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긴 기대를年初부터 실제화되기를 바란다.



경제기획원 차장 김기환

製造業 살리는 금융·稅制 지원 與 信 用 規 制 解 除 工 場 擴 充 이 主 眼

경제기획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밝힌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제가 좀더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리는 금융·세제 지원과 신용규제 해제를 공장 확충의 주안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6-7% 成 長 을 유 지

경제기획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밝힌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제가 좀더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평균 6-7%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處 方 未 だ 輸 出·投 資 유 츠 러 들 어

경제기획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밝힌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제가 좀더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처방을 아직은 수출·투자 유츠러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輸入 自 由 化 는 충 격 없 도 록

경제기획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밝힌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제가 좀더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輸入自由化는 충격 없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政府입장

수출물량 증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수출물량 증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業界의견

다양한 업계의 의견은...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경쟁력보완이로 輸出品을 늘려 가다

輸出추진권

경쟁력보완을 위한 수출품 증가...

短期효과를 기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

金利조정등 필요

금리 조정 등 필요한 이유...



Portrait caption and related text...



Portrait caption and related text...

政府의 意圖

○ 政府의 意圖는 國家의 經濟政策을 決定하는 重要한 因素이다. 政府은 國家의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爲하러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政府의 意圖는 國家의 經濟政策을 決定하는 重要한 因素이다. 政府은 國家의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爲하러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 政府의 意圖는 國家의 經濟政策을 決定하는 重要한 因素이다. 政府은 國家의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爲하러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政府의 意圖는 國家의 經濟政策을 決定하는 重要한 因素이다. 政府은 國家의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爲하러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業界의 動向

○ 業界의 動向은 國家의 經濟發展에 直接적인 影響을 미친다. 業界는 國家의 經濟政策에 反應하여 發展하고 있다. 業界의 動向은 國家의 經濟發展에 直接적인 影響을 미친다. 業界는 國家의 經濟政策에 反應하여 發展하고 있다.

中

景氣浮揚策 이렇게 본다

景氣浮揚策을 爲하러 政府은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政府의 意圖는 國家의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爲하러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景氣浮揚策을 爲하러 政府은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政府의 意圖는 國家의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爲하러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 景氣浮揚策을 爲하러 政府은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政府의 意圖는 國家의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爲하러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우측의 企業投資마인드 부추기 主眼

設備投資

○ 設備投資은 企業의 發展에 重要한 因素이다. 企業은 設備投資을 增加시켜서 生產力을 提高하고 있다. 設備投資은 企業의 發展에 重要한 因素이다. 企業은 設備投資을 增加시켜서 生產力을 提高하고 있다.

대기업 與信規制 완화 등 補完필요

○ 대기업 與信規制 완화 등 補完필요. 政府은 대기업의 與信規制를 완화하고 있다. 政府은 대기업의 與信規制를 완화하고 있다.



林昌烈 財務部 次長

○ 林昌烈 財務部 次長의 演說. 林昌烈 財務部 次長은 景氣浮揚策에 關하여 演說하고 있다. 林昌烈 財務部 次長은 景氣浮揚策에 關하여 演說하고 있다.



崔寬植 農工部 次長

○ 崔寬植 農工部 次長의 演說. 崔寬植 農工部 次長은 景氣浮揚策에 關하여 演說하고 있다. 崔寬植 農工部 次長은 景氣浮揚策에 關하여 演說하고 있다.

○ 景氣浮揚策을 爲하러 政府은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政府의 意圖는 國家의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爲하러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 景氣浮揚策을 爲하러 政府은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政府의 意圖는 國家의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爲하러 各種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政府의 方針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팔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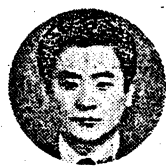
내부의 回方

내부의 회방은 내외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내외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내외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策揚浮景 이렇게 본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팔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內需촉진책 안쓰는 건 國際收支 大문



康 泰 均

내수촉진책 안쓰는 건 國際收支 大문. 내수촉진책 안쓰는 건 國際收支 大문. 내수촉진책 안쓰는 건 國際收支 大문.

政府의 回方

政府의 회방은 내외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내외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내외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적정수준의 換率 實勢化 계속돼야



朱 東 泰

적정수준의 換率 實勢化 계속돼야. 적정수준의 換率 實勢化 계속돼야. 적정수준의 換率 實勢化 계속돼야.

不況 感じり

韓半島の不況感、大抵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特に製造業、建設業、小売業、サービス業など、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特に製造業、建設業、小売業、サービス業など、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

自動車 VTR 好況・造船等 最悪

「下半期回復」政府 전망에 業界 대부분 회의적

韓半島の不況感、大抵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特に製造業、建設業、小売業、サービス業など、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特に製造業、建設業、小売業、サービス業など、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

業種 따라 웃고우는 景氣 흐름

韓半島の不況感、大抵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特に製造業、建設業、小売業、サービス業など、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特に製造業、建設業、小売業、サービス業など、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

韓半島の不況感、大抵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特に製造業、建設業、小売業、サービス業など、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特に製造業、建設業、小売業、サービス業など、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

韓半島の不況感、大抵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特に製造業、建設業、小売業、サービス業など、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特に製造業、建設業、小売業、サービス業など、どの業界でも「不況感」を感じている。

“동동방 서울로” 地方經濟 허덕

不況 걸이려나

지방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로 몰려오는 동동방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서울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서울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釜山

부산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부산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부산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海運·신발業 부진으로 침체 가속화

부산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부산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부산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大邱

대구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施設근대화 등 섬유工業 부추겨야

대구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光州

광주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소비都市型 벗도록 工團 조성 시급

광주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제력이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容炫



徐正衡



洪淳安

不況 踏み切ら

3

「不況は、踏み切らなければならぬ。企業は、生き残るために、不況をチャンスと捉え、大胆な経営改革を断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不況は、踏み切らなければならぬ。企業は、生き残るために、不況をチャンスと捉え、大胆な経営改革を断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不況は、踏み切らなければならぬ。企業は、生き残るために、不況をチャンスと捉え、大胆な経営改革を断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不況は、踏み切らなければならぬ。企業は、生き残るために、不況をチャンスと捉え、大胆な経営改革を断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不況は、踏み切らなければならぬ。企業は、生き残るために、不況をチャンスと捉え、大胆な経営改革を断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不況は、踏み切らなければならぬ。企業は、生き残るために、不況をチャンスと捉え、大胆な経営改革を断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不況は、踏み切らなければならぬ。企業は、生き残るために、不況をチャンスと捉え、大胆な経営改革を断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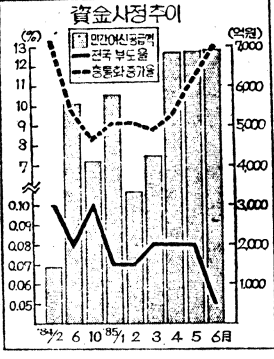
「不況は、踏み切らなければならぬ。企業は、生き残るために、不況をチャンスと捉え、大胆な経営改革を断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不況に突進 “不況” 不況

企業규모・業種別事情見概

民間取引 3兆円規模の建設業 資金難克服

建設業は、民間取引が3兆円規模に拡大し、資金難克服の兆しが見られる。民間取引の拡大は、建設業の成長を促す重要な要因となっている。また、業種別に見ると、製造業は不況の影響を受け、業績が低迷している。一方で、サービス業は比較的安定した業績を上げており、企業の生き残り戦略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



建設業は、民間取引が3兆円規模に拡大し、資金難克服の兆しが見られる。民間取引の拡大は、建設業の成長を促す重要な要因となっている。また、業種別に見ると、製造業は不況の影響を受け、業績が低迷している。一方で、サービス業は比較的安定した業績を上げており、企業の生き残り戦略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

民間取引 3兆円規模の建設業 資金難克服

建設業は、民間取引が3兆円規模に拡大し、資金難克服の兆しが見られる。民間取引の拡大は、建設業の成長を促す重要な要因となっている。また、業種別に見ると、製造業は不況の影響を受け、業績が低迷している。一方で、サービス業は比較的安定した業績を上げており、企業の生き残り戦略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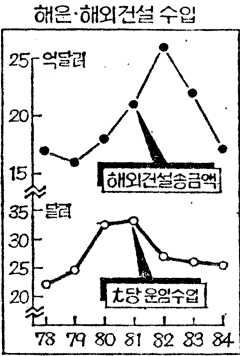
해외건설 海運은 밑바진 독

不況 걸이려나

4

최근 건설업은 물론 해외건설업도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와 함께 해외건설업도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은 물론 해외건설업도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건설수입액이 1985년 1~5월 평균 15.5% 감소했다. 이는 1984년 25.5%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특히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이는 해외건설업이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설 受注줄고 未收金 31億달러

海運업계 銀行빚 2兆4千億원 償還延期 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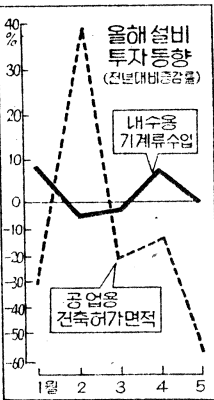
건설업은 물론 해외건설업도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은 물론 해외건설업도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不況 걸이려나

5

내수증기계류수익
 1 2 3 4 5



제조업체 음츠러든 投資의욕

제조업체 음츠러든 投資의욕... (Text describing the decline in investment desire of manufacturing companies due to economic stagnation and uncertainty.)

一時현상 아니라는 데 심각성

“금융긴축·不實기업整理조치의 여파”

금융긴축과 불실기업정리조치의 여파로 인해 제조업체의 투자욕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자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체의 투자욕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자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금융긴축과 불실기업정리조치의 여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不況 競い烈々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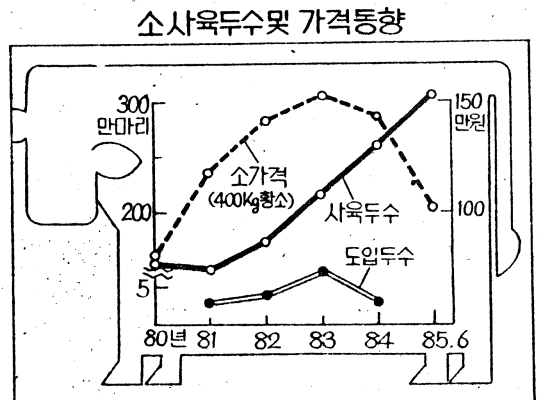
不況 競い烈々
 不況 競い烈々
 不況 競い烈々

소값 무덤고도 긴 바막時勢

송아지사다 먹인값 따지면 百30萬원 팔려고 내놓으면 1百萬원도 못받아

최근 기름세가 採算맞을 때까지 계속될지는 의문

56
 56
 56



최근 기름세가 採算맞을 때까지 계속될지는 의문
 56
 56
 56

<축산신문기>

不況 克服 見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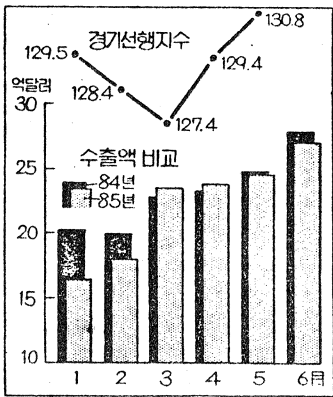
景氣好轉 이직은 만길

한국경제가 1985년 6월 12일 기준 129.4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1984년 12월 129.5를 기록한 이후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6월 129.4, 5월 127.4, 4월 128.4, 3월 128.4, 2월 128.4, 1월 129.5로 나타났다.

浮揚策 大 농쳤다 "業界 시큰둥"

金利税制 등 租子적인 投資유인책 大 反響

한국경제가 1985년 6월 12일 기준 129.4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1984년 12월 129.5를 기록한 이후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6월 129.4, 5월 127.4, 4월 128.4, 3월 128.4, 2월 128.4, 1월 129.5로 나타났다.



업종	24분기	34분기
음료	☀️	☀️
섬유	☀️	☀️
나무	☀️	☀️
화학	☀️	☀️
고무	☀️	☀️
철강	☀️	☀️
기계	☀️	☀️
전자	☀️	☀️
자동차	☀️	☀️
조선	☀️	☀️
제조업	☀️	☀️
서비스업	☀️	☀️

수출액 증가에 따른 제조업의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호황이 뚜렷하다. 그러나 내수 시장은 아직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한국경제가 1985년 6월 12일 기준 129.4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1984년 12월 129.5를 기록한 이후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6월 129.4, 5월 127.4, 4월 128.4, 3월 128.4, 2월 128.4, 1월 129.5로 나타났다.

失業 충격 줄일 對備策을

企業·정부·근로자가 操心해야

1

失業 대비책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한다.

통계로 본 失業 상황은 물론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5월말현재 失業率は 4.4%이다. 통계상 失業率は 크게 늘지도 또 줄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現象面에서 보면 失業의 증대는 우려되어야 할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 해외건설의 위축에 따라 건설기능자가 대량 귀국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 6만여명이 귀국한다. 이들은 전직이 용이한 非 숙련공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기전에 기술훈련도 받았고 또 상당한 경력도 쌓은 기능자들이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이들 건설기능자를 흡수할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둘째로 景氣부진의 여파로 管理職의 해고가 잇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연령적으로 우선 中高年層에 속한다.

그래서 설혹 일자리가 있다해도 전직하기가 어려운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失業의 사회적 충격은 가장 큰 연령층인 것이다.

셋째로는 대학졸업자중 未就業者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입대 대학원진학 및 해외유학 등의 배출구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잡지 못

한 대학졸업생이 계속 적체되고 있다.

네째로는 도시의 영세계층의 半失業상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날품팔이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같은 실업률이라 하더라도 그 충격은 옛날과는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한다.

돌아갈 농촌, 의지할 친척이 없어진 지금엔 실업은 생존의 위협을 의미하고 이들을 부조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제 6 차 5 개년계획은 계획기간중의 연평균 성장률을 7%로 잡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7%수준으로 유지해야만 연간 36 만명인 취업증가율 2.3%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차계획중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은 1.69%, 연평균 26 만명이었다. 다시말해 매년 26 만명의 새 일자리가 더 필요했다. 그런데 6 차계획에서는 연 36 만명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장률이 7%를 밑돌면 불가불 일하고자 하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올해의 경우 하반기엔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는 하나 성장률은 7%를 밑돌것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雇傭사정도 호전된다고 보자 당분간 나빠진다고 보아진다.

사회보장이 완비되어 있다면 失業의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엔 그런 사회보장 장치가 없다. 따라서 失業의 증대는 사회불안과 직결되기 쉽다. 이런 염려가 크기 때문에 失業대비책은 강도높게 지금 강구되어야 옳은 것이다.

失業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우선 마찰적인 失業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전반적인 雇傭사정의 호전은 景氣가 회복되어야만 가능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모자라는 부문으로 남는 사람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轉職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轉職훈련과정을 크게 늘리고 훈련중의 생계보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다.

80년의 불황때도 이 전직훈련의 확대조치는 강구되었었다.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안다.

失業의 일시구제를 위한 방도로는 공공토목공사의 확대도 들 수 있다.

정부는 景氣의 제한적 浮揚을 위해 追更豫算의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 약 1천억원 규모의 농어촌 도로포장 공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1천억원중 상당부분이 근로자의 소득이 될 것인즉 失業구제의 뜻은 적지않겠으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도시거주의 실업자에게 농촌도로의 포장공사가 과연 마땅한 일자리가 되겠느냐는 점이다. 일자리를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

일감이 모자라는 기업으로서는 남는 인력을 내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업증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유지가 최선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사람을 줄여서 경영압박을 덜자는 손쉬운 선택은 그 때문에 실업이 더 늘어나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애사심을 죽이는 결과도 되어 결코 기업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경기를 부추기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업을 도와주자고 한 것도 따지고 보면 감원사태를 막자는 것이었다. 아직도 미흡한 감은 있으나 그동안 국민과 정부는 기업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았다. 더 도울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찾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기업이 이런 국민적 성원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최대한의 고용안정을 기해야 할 도의적 책무가 기업에게 있는 것이다.

군살을 빼어 경영합리화를 이룩해야 하며 不況期는 이런 경영합리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를 오로지 감원만으로 달성하려 들고 그 때문에 국민의 원성을 산다면 공연히 反企業감정을 고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보아 기업에게 덕될 것이 없다.

지금은 참을 때이다. 이 不況期를 참고 견디 다시금 호시절을 맞을 때 과감한 경영합리화를 단행하는 인내와 지혜를 기업들은 지녀야 한다.

당연히 정부는 이런 기업의 노력을 도와주어야 한다.

追豫의 民生과 景氣浮揚效果

(一)

침체상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 景氣를 부추기기 위해 모든 방도의 강구가 요청되고 있는데 정부가 2천 5백 72 억원 규모의 追更豫算案을 편성한 것은 한마디로 잘 한 결정이다.

輸出·內需의不振이 야기한 沈滯餘波는 生産·工事의 위축 → 在庫·滯貨·滯貨 → 대량감원 → 所得減少 → 購買力低下로 擴散되고 있으며, 이러한 침체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景氣浮揚에 直接的인 效果가 큰 財政의 活用이 소망돼 왔던 것이다. 올들어 輸出이 감소돼 왔고 기업의 投資意欲도 위축된 狀態를 繼續하자 정부는 制限的인 金融緩和를 통해 통화공급량을 늘리고 輸出의 價格競爭力을 부추기기 위해 換率의 實勢化를 試圖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輸出과 設備投資가 下半期에 들어서면 上半期보다 나아질 展望이지만 아직도 전반적인 景氣活性化로 擴散되기에는 未洽한 狀態에 있다. 이러한 과도적인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低所得層의 失業 증대와 그들의 家計所得 감소가 빚는 民生의 不安定이다.

민간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狀況에서 低所得層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들의 所得을 증대시키려면 민간경제에 일자리와 수요를 創出하는 정부의 獨立投資를 活用하는 길밖에 없다. 이는 沈滯狀況에서 援用되는 古典的인 財政政策의 한 樣

態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이번 追更을 통한 財政자금의 국민경제에의 投入은 經濟狀況에 伸縮적으로 對應하는 조치일뿐 더러 景氣回復에 誘水機能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 총규모의 67%를 넘는 1천 7백 32억원이 일반도로 포장 및 개수, 83~84년에 소를 入殖한 0.5ha 미만의 영세농가의 中·高生 수 업료 면제, 영세민 보호지원 등에 重點配定키로 됐는가 하면 총규모의 27%에 상당한 7백억원을 中部고속도로 건설, 김포공항 擴張工事, 光陽공업기지 건설 등 大型 政府工事に 投入키로 돼 있음은 農村과 도시의 低所得層에 就勞기회를 擴大시켜 그들의 所得과 購買力을 증가시키는 效果와 아울러 일거리 없는 建設土木업계에 活氣를 注入하고 滯貨狀態에 있는 建設關聯 資材생산에도 큰 수요를 제공하는 效果가 있을 것이다.

(二)

우리가 이번 追更에 바라는 것은 그것이 민간 각 부문에의 수요환기와 所得의 供給效果를 통해 전반적인 생산과 경제成長을 부추기는 誘水작용이다.

일부에서는 追更을 통한 財政의 追加支出이 最近 풀린 銀行돈에 겹쳐 通貨의 膨脹을 초래할 경우 最近 몇년동안 틀이 잡혀온 安定기조를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傾向도 없지 않은게 사실이다.

通貨指標를 보면 7월중 總通貨는 前年同월에 비해 12.6% 增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輸出金融 單價引上和 앞으로 追更에 의한 財政支出이 실시될 경우 연말 總通貨 增加率이 13%를 넘게 될 可能性을 隱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는 정부가 通貨운용에 있어서 安定을 해치는 요소를 최대한 피하면서 景氣浮揚을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局面에 서게 됐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번 追更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歲計잉여금 4천1백72억원의 일부로로서 韓銀에서 새로 借入하는 빚은 아니기 때문에 그 財源捻出 자체는 국민들의 새로운 부담추가가 아니다.

더구나 7월까지 總財政收支는 稅收好調로 8천5백97억원의 黑字를 나타냄으로써 前年同期에 비해 4백77억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念慮되는 總通貨의 膨暢은 과잉유동성을 金融面의 通貨安定證券發行 등으로 吸收해 나가는 必要性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것은 硬直的으로 通貨指標의 목표유지에만 執着하는 나머지 生産·投資·고용에 必要한 成長通貨의 공급에 劃一的인 制動을 거는 것만이 經濟의 安定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經濟의 現實狀況에 對應하는 財政·金融政策의 伸縮的 運用이다.

이는 勿論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 또 한가지 安定과 成長이 충돌하는 요소로서 우리는 換率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들어 對美換率은 지난 반년동안에 6%를 넘는 상승을 나타냈다. 短期的으로 는 우리 輸出의 價格競爭力을 有利하게 함으로써 輸出增大에 기여하는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外債상환금의 증가와 海外原資材의 국내 가격인상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와 물가에 주는 惡影響을 過小評價 할 수는 없는 것이다. 美金利의 下落傾向과 달러貨의 弱勢라는 換率 安定與件을 생각하거

나 국제油價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狀況을 고려에 넣을경우 換率實勢化의 國內 경제안정에 미치는 逆機能을 相殺할 對策이 必要하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追更案에 대해 우리는 民生安定과 景氣沈滯打開를 위해 조속심의를 促求하는 同時 安定기반의 유지를 위해 신중한 金融·換率政策의 展開를 바라마지 않는다.

統計의 時差와 政策 판단

(一)

結核을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가볍게 誤診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수가 많았다. 반대로 대단치 않은 過勞를 重病으로 잘못 판단, 필요 이상의 損失을 입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만큼 정확한 診察이 治病의 기초요, 절반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는데 異見이 없다.

人口가 늘고 文明이 발달할수록 社會經濟現象이 복잡해져 그에 대한 把握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統計의 중요성은 加重된다.

특히 事件의 집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연면히 이어지는 經濟現象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先·後進을 막론하고 各國은 정확한 통계의 운영에 많은 豫算과 人力을 기울인다.

우리의 경우에도 62년부터 경제기획원안에 統計局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83개기관이 모두 3백 29종의 중요통계를 관장, 작성하고 있다. 統計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각종 주요통계는 기획원통계국의 승인과 지도를 받고 있다.

그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政府統計의 신빙성은 바라는만큼은 제고되지 않고 있으며 왕왕 국민의 不信뿐 아니라 公共기관 내부에서조차 信賴度를 둘러싼 不信 또는 過言사이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여러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統計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한가지만 잘못되어도 正確性에 타격을 받으며 그것을 기초로 한 政策의 판단·立案·시행은 엉뚱한 결과를 빚게 마련이다.

뭐라고 해도 국민생활에 가장 밀착된 통계의 대표는 物價統計인데 그것을 놓고 「指數」와 「體感」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是非가 붙은 일이 非一非再했다. 그 이유로선 調査者의 他意 또는 부정확성으로 실제 물가를 틀리게 조사하는 誤謬도 있을 수 있으며 품목별 加重值의 임의조작 등으로 行政기관이 統計를 의도적으로 誤導한 실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올 上半期 몇달을 두고 볼 붙어온 景氣診斷 논쟁이야말로 과거의 어떠한 統計是非보다 양측 주장이 相反되었고 攻防이 치열했던 대표적 事例였다 할 것이다.

政策當局은 올 上半期의 경기가 「安定性 好況」이라는 분석이었고 業界를 비롯한 많은 專門家들은 沈滯 내지 不況이라는 견해였다. 물론 不況이라는 語義가 恐慌(Panic)의 어감을 내포하기 때문에 用語사용의 正確성에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21일 발표된 韓銀의 上半期경기추계로 극심한 沈滯라는 판정이 나오고 말았다.

「安定性」이란 修飾語가 전문성을 갖기는 하지만 어쨌든 「好況局面의 지속」과는 정반대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二)

과거 20여년의 高度成長 관성에 비추면 3.2%의 성장은 극심한 低

調임에 틀림없으나 他國의 通例로 보면 그것을 바로 恐慌性的・不況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고 따라서 絶望할 단계는 절대로 아니다.

오늘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은 政策判斷자료로서의 統計를 활용하는 當局의 자세이다.

올 上半期 경기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誤謬는 單位・표준・시간・장소의 4개 總計요건 가운데 時間의 개념에 몹시도 鈍感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서의 統計의 時間요소가 크게 相反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 失手라고 본다. 말을 바꾸면 정부가 國民經濟라는 복합현상을 파악하는 道具로서의 통계작성에는 時差가 있는 법인데 그 중요성을 看過한 것이다.

어음不渡率・수출통계 등 큰 時差없이 바로 집계되는 經濟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指標 가운데 많은 것들은 恒例 1~3개월의 時差를 갖게 되어있다. 말하자면 완성된 통계를 손에 넣는 시기는 그 실제狀況이 발생한 때로부터 1~3개월 뒤가 된다. 集計방식의 개선과 더구나 高度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計算의 신속화로 그 時差를 최대한 단축한다 하더라도, 특히 全數통계에는 스스로 限界가 있다.

이때 景氣가 오르막일 때에는 當局이 모든 計數를 분석하여 「好況」이라고 판단하기에 앞질러 業界나 家計의 현실감각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공식의 「好轉」통계를 일반이 쉽게 믿게된다. 그러나 반대로 景氣가 급격히 냉각되는 기간중에는 業界나 소비자는 이미 매일매일 賣出・代金회수・支拂청구 등 모든 感覺係數가 악화됨을 체험하고 있는데 當局은 2,3개월전 뒤늦은 惡化이전의 指標를 내세우니까 당연히

兩者간에는 심한 감각의 격차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後者が 上半
期중의 景氣論爭을 가져온 根因이 되었다고 믿는다.

이같은 不祥事는 外國에서도 생긴다. 그래서 美·日의 경우 近年에
이같은 公式統計의 非彈力性を 보완하는 現場(On the Spot) 조사방
식이 도입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말하자면 定規的인 통계는 그것대
로 充實히 진행하면서 賣出·代金결제 등 現場변화를 신속히 파악하는
感覺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신설로 모든 통계를 中央集中하려는 청부의 계획과는 전혀
別個의 次元에서 動脈硬化를 방지하고 유연하게 行政에 五感を 活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앞으로는 政策立案에 失機가 없이, 복잡한
경제현상을 時宜맞게 料理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低成長의 因果

—海外의존 경제의 불가피한 趨移—

상반기 GNP(국민총생산)의 실질성장률 3.2%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작년상반기의 성장률(10.5%)에 비해서는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것이며 특히 제 2기분의 성장률 2.7%는 80년 이후 분기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 低成長은 세계적인 일반적 현상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海外依存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해외경제가 가장 직접적이며 즉각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해외의 일반적 低成長이 우리경제의 低成長을 결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놀랄일은 아닌 것이다. 美國, 日本, 싱가포르 등은 모두 1%미만의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오히려 이런 低成長을 지향하는 과정을 통해 低成長이 아니라 고 우기고 언필칭 安定的 好況국면을 내닫고 있다는 상반된 發想法에 있었다. GNP 성장률은 작년 1분기의 12.7%를 頂點으로 계속 銳角적인 내리막길을 달려나왔다. 2분기엔 8.8%, 3분기엔 6.2%, 4분기엔 4.6%로 급격한 鈍化현상을 나타냈고, 그런 추세는 울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져 1분기엔 3.9%, 그리고 2분기엔 2.7%를 기록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경기의 침체과정을 통해 업계에서는 不況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해 나왔다. 거기에 대해 당국은 최근까지도 安定的好況국면임을 내세워 업계의 不況說을 엄살로 내몰았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

금의 不況의 主因은 뭐니뭐니 해도 輸出不振에 있다. 특히 美國經濟의 침체로 우리나라 輸出은 7월말현재로 작년동기 수준에서 전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內需진작으로 수출부진을 보완하자니 國際수지의 악화=外債累增의 위험이 따른다. 결국 있지도 않은 好況을 내세워 不況과 경기대책을 호소하는 업계에 맞서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다소 失機한 흠은 없지 않으나, 換率을 상당한 폭으로 올렸고 수출금융의 융자단가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대기업에 대해 수출금융은 여신한도에서 제외시켜 주며 최근에는 제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여신규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통화공급을 상당한 폭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이 얼마만큼이나 경기를 자극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것과 아울러 경기진작촉진책으로 住宅건설에 박차를 가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경기진작에 奏效할 것으로 본다는것 또한 힘들줄 여긴다. 한편 정부는 製造業의 설비투자에 자금을 무한정으로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투자가 극도로 침체해온 것이 투명치 못한 국내-외의 경제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자금배정만으로 투자가 성행할 것으로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긴, 경기진작을 위해 소망스런 방도는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기가 우리국내적 대책만으로 浮沈하기엔 그 海外依存도가 너무나 높다. 그것을 무시하고 內需진작에 필요이상으로 注力하면 그 만큼은 국제수지의 악화를 빚을 수 밖에 없다. 국제수지의 악화를 빚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에는 우리에게 선택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景氣指標은 고장났었는가

이달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경기 지표의 고장 때문이 아니라,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經濟外話

崔禹錫

〈編輯局長 代理〉



成長急落해도 계속 「안정적 회복」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경기 지표의 고장 때문이 아니라,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경기 지표의 고장 때문이 아니라,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경기 지표의 고장 때문이 아니라,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의 경제지표가 8.0%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景氣轉換국면의 善用

(一)

흔히 경제성장의 加速과 減速을 되풀이하는 景氣循環과정은 起伏을 수반하는 흐름이라 표현되고 있다. 市場경제의 자율적인 調整機能이 경기상승의 자연적인 上限을 가져오듯이 景氣沈滯에도 어느 정도는 자연적인 下限이 있다고 보는것이다. 그리고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政府部門의 경기조절적 支出增減이 경기변동의 촉발적인 根源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차례의 경험을 통하여 잘알고있다.

이같은 視角에서 볼때 지난해중반이래 下向曲線을 그려온 國內景氣의 흐름이 최근들어 다소 反轉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不況是非가 분분한 가운데 景氣沈滯로 인한 支出의 감소는 政府로하여금 불가피하게 金融緩和조치를 취하지 않을수없게 하였다. 또한 產出高의감소는 失業의 증가를 초래한 代價로 賃金を포함한 原價水準의 壓迫을 다소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부가취해온 일련의 投資促進策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臨時國會를 통과한 追更豫算은 民生을 부축하기 위한 景氣浮揚的 支出增加를 골자로 하고있다. 정부가 이제부터 연말까지 1천 7백 40억을 풀어 道路, 上·下水道등 각종 公共部門工事を 집중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國內建設경기는 어느정도 活性化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비교적 고용효과가 큰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延人員 3백 25만명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정부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경기부양적인 財政支出의 增加가 크건 작건간에 곧 그 효과를 나타낼것은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조만간 民間部門의 經부 消費와 投資를 비롯한 支出의 감소가 멈춰지고 경제의 흐름도 일단 그힘으로 호전되리라고 期待할수있다. 아직은 國內景氣의 뚜렷한 反轉기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例年の 경우대로라면 秋夕대목을 전후하여 일게될 內需景氣의 소생가능성등이 여기에 加勢해, 이 시기부터 年末까지의 景氣展望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것은 아니다.

물론 貿易依存度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國內景氣의 展望은 세계경기의 변화로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수없다. 美·日등 先進國들의 경제성장이 아직도 저조한 채로있어 세계경제의 展望은 不透明하며 그것이 우리경제의 앞날을 결코 낙관할수 없도록 만드는 要因이되고있다. 그러나 울들어지난 6월까지 매우부진했던 우리의 輸出이 7, 8월들어 완만하나 回復勢로 돌아서고 있다는것은 財政支出증가와 함께 앞으로의 國內景氣의 反轉가능성을 뒷받침할수 있는 靑信號로도 접쳐볼수 있는것이다.

다말 이같은 조짐들이 일시적 泡沫현상이 되지않고 견실한 上昇局面으로 이어지게 하는것이 當面課題인 것이다.

(二)

景氣變動에 대한 몇가지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장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展望하는 자세는 경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悲觀論 역시 지표상으로 나타난 派滯현상 그 자체보다도 경제의 未來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自傷行爲가 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우리가 최근 國內景氣의 反轉가능성에 대하여 다소 기대를 갖는 까닭도 이같은 景氣變動의 心理的요인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政府가 취하고있는 일련의 경기부양적 조치들과 自律市場機能이 상호자극의 과정을 거치게되면 企業의 期待가 높아지고 未來에 대한 樂觀主義가 다시 소생하여 景氣의 회복과 成長속도의 만회가 不可能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자면 우선 정부는 앞으로 투입한 財政支出의 효과가 단순히 公共部門공사에 그치지 않고 民間建設部門의 활성화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파급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특히 民間建設景氣의 회복이 豪華건축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소비성이 강한 部門에서가 아니라 住宅建設·工業施設과 같은 생산적인 투자에 의하여 主導되도록 유도하는 세심한 배려와 後續措置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완만한 回復勢를 보이고있는 輸出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增加勢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業界와 當局의 비상한 노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 수출이 7,8월에 증가를 보였다고하나 前年同期 對比 증가율은 微微하다. 또한 8월중의 信用狀來到額도 작년보다 4.8% 증가하였다지만 그것이 輸出展望을 밝게해주는 수준으로는 未洽하다.

이같은 輸出의 回復勢가 선진국들의 在庫조정 마무리, 換率實勢化, 절차간소화, 설비금융공급확대등의 輸出促進策에 힘입은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그러나 輸出을 늘리기 위하여 換率을 마냥 올릴경우의 副作用과 그 期待效果의 時限性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 生産性 향상의 기본요건인 設備投資와 기술 혁신투자의 촉진에 誘引政策이 집중돼야할 시기라고 믿는다.

비록 지난 上半期の 經濟 成長率이 3.2%에 그쳤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企業과 근로자가 견실한 노력을 경주하며 政策의 뒷받침이 따른다면 최근의 景氣回復局面을 지속화시키는 하나의 轉換點을 만들수가 있으리라 믿는다.

擴大정책의 위험

— 景氣엔 별 寄與없이 外債누증만 —

경기정책의 基調가 서서히 擴大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은 擴大쪽으로 기운지가 이미 오래인지 모른다. 정부가 이른바 「安定的인 好況국면」임을 내세워 경기浮揚 시책의 無用論을 펴 온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도 通貨는 팽창을 거듭해 나왔으며, 다각도로 경기대책이 강구되어 나왔다. 8월말의 總通貨가 전년동기대비 13.2%에 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니와 擴大정책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通貨趨移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욕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침체한 지금의 경기동태로보나 不透明한 앞으로의 전망에 비추어 경기부양시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는 정책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가간다. 2~3개월 앞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경제기획원의 경기先行指數는 0.2%가 감소하고 있다. 희망을 걸었던 下半期 경기는 下半期の 중간쯤에 이르른 지금 아직도 먹구름에 싸여있는 것이다. 이럴때 싫건 좋건 경기부양시책을 펴지않을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기대책의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기침체는 輸出不振에 따른 것이다. 上半期엔 輸出실적이 작년동기대비 4%가 줄었고 下半期에 들어와서도 제자리걸음으로 위축해 있다. 換率輸出融資單價 기타 輸出증대를 위한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렇다면 內需진작으로 경기를 부추길 도리밖에 없다. 정책이 擴大 쪽으로 기운것은 다름아닌 內需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데 本欄이 되풀이 하는 얘기지만 內需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은 輸入증대=국제수지惡化=外債累增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低成長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는 그 동안의 「擴大정책」의 과정에서 입증되고 있거니와 지나친 海外依存경제가 輸出의 침체를 딛고 內需진작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잘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기껏 通貨팽창이 輸入증대로 漏出되어 경기에 미친 効果보다도 外債누증에 만 더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말이 났으니 하는 얘기지만, 이럴때 舉族的인 外債節減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二律背反이다. 外債절감운동은 消費節約운동인데 不景氣때 소비절약운동을 벌이면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은 너무나 明白한 일이다. 한편으론 소비절약 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內需振作을 꾀하며, 그것을 위해 通貨增發을 추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外債절감을 위해 소비절약이 불가피한다면 內需부양책은 아무래도 保守的으로 추진되어야 할 밖에 없는 것이다.

擴大정책이 70年代 처럼 악성인플레이를 조성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70

년대엔 海外原資材 가격이 石油를 비롯, 전반적으로 강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 지금은 石油와 원자재의 가격이 모두 下落사태를 빚고있다. 국내적인 인플레이정책에도 불구하고 輸入物資의 가격은 下落의 정도가 적을뿐 별로 오르지 않는 것이다.

한데, 바로 그 점이 擴大정책을 유혹하는 함정일 수 있다. 그러나 下落해야할 物價가 다소나마 上昇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소비자의 희생도 문제이려니와 국제가격이 반등하는 날, 國內物價는 터무니없는 악성인플레이를 겪게될 것이라는 것도 경계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성장과 안정 再論

(一)

요즘 景氣가 좋지 않다하여 成長政策으로 다시 回歸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같이 지난 7,8월의 輸出實績이 이미 작년동기비 약간 늘어났고 生産·出荷가 조금 증가했지만 국내 景氣先行指數가 금년말까지 0.2% 감소하고있는 마당에선 아직은 앞일이 거정된다.

사실 地方이나 工業基地를 다녀 보노라면, 또 輸出에 종사하거나 조그마한 中小企業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려운 사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生産現場을 봐도 마찬가지다. 海外建設쪽에서 많은 裝備와 人力이 되돌아 오고있고 造船이나 海運에서도 주름살이 늘고 있다. 요즘은 그 波及效果에 더하여 다른 一般生産企業에서도 특수한 好況産業을 제하고는 대개 고민이 쌓인 채로 있다.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大學卒業者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既存傭人들도 가능하면 줄여보려는 기업이 늘고 있는 형편

이다.

정책당국으로선 이런 상황을 앉아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安定的好況을 계속 구가할수도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또 經濟的不況局面의 지속이 社會·政治的安定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무슨 처방전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간 換率을 계속 低評價해 보기도 하고 輸出融資單價를 올리거나 輸出品生産施設에 無制限融資 또는 8월말 總通貨를 前年同期比 13.2%까지 늘리기도 하였다. 民間建築붐을 조성하거나 나아가 내년도 豫算까지 擴大해보자는 구상까지 하고들 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개선의 징후는 아직 명백히 나타나지 않고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란 原論적으로는 外需와 內需를 인위적으로 크게 늘리거나 金融·財政양면에서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다. 만일 위와 같은 方法으로도 이렇다할만한 效驗이 없을 경우 좀더 强度의 處力을 내놓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으로선 內需擴大에 치우칠 수 밖에 별도리가 없다. 문제는 內需擴大가 國際收支惡化, 外債累增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돈이 生産에 어느정도 직결되는가로 귀결된다.

(二)

우리는 成長과 安定을 相衡적으로 볼수도 있고, 相互補完적으로 볼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구조와 발전단계에 따라, 企業과 家計의 行態에 따라, 또 對外與件과 生産性·생산비의 내역에 따라 어떤때는 이들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어떤때는 또 서로도우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 經濟構造가 深化되면서 生産財와 中間財, 部品生産이 경쟁적이고 생산적일때, 저축이 많고 근면할때, 開放經濟體制아래서 해외원자재와 에너지單價가 싸고 교역조건이 유리하게 전개될 때는, 나아가 外需가 많고 확장될때는 어지간한 成長政策을 써도 인플레이없는 安定的 成長을 능히 구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즉 사회에 부조리가 많아 社會生産性이 뒤떨어질 때, 기업에 能率과 投資意慾·革新의 힘이 떨어지고 안이할 때, 在庫가 필요이상 많으며 노임과 이자가 높아 生産費의 構造가 취약할 때, 특히 外需에 애로가 생길때는 어지간한 擴大政策을 써도 즉각 物價上昇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구조는 아직 취약하고, 변모·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金融이나 財政의 擴大政策을 競爭力있고 生産的인 부문에 투입하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지나 그렇지 못할 때는 즉각 不安定的 成長이 배태된다.

不實債權을 늘리거나 몇군데 非生産的 投資를 집중해서는, 또 無選別的인 消費性資金·享樂資金이 조금이라도 있어선 안되는 경제다. 지금같이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加工하여 輸出하는 경제구조아래선 수출

이 늘지 않을때 내수만을 확대하여선 차칫 수입증대 · 외채누증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돈을 金融이든 財政이든 生産的인데 얼마만큼 投資하는가에 있다. 企業이 정말 양심적이고 의욕적일 때 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判斷力과 果斷性이 정부측에 겸비해야 하고 이것이 善循環的으로 再投資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 진다.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의 말과 같이 매크로한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마이크로한 企業金融·企業活力再生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기업을 바탕으로 成長과 雇傭·所得增大가 가능해지고 여기서 낭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이루어지면, 생산성이 제고되고 기술이 혁신되면, 그래서 경쟁력이 上向曲線을 그으면 비로소 成長과 安定, 나아가 福祉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지금 體質은 安定도 필요하고 성장도 필요하다. 이 둘을 함께 지니기 위해선 그 배후의 生産性向上·勤儉節約·正直과 社會的 能率培養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 성장과 안정의 兩者擇一보다 安定的成長의 條件정비가 더 시급하다.

정부의 「安定固守」실체를 벗겨보면

안정고수란 무슨 뜻인가? 안정고수란 안정과 고수라는 두 단어를 합친 말이다. 안정이란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고수란 고수한다는 뜻이다. 안정고수란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고수한다는 뜻이다.



조심스런 방향전환 成長으로

조심스런 방향전환 成長으로. 이 글은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고 있다. 방향전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심스런 접근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失業者증가... 고용문제 등 심각

換率인상·通貨증가 이 미反轉. 실업자가 증가하고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환율 상승과 통화 가치 상승이 미반전되는 상황에서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 시장의 위축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 문제의 심각성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가 크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펼쳐다 왔나!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펼쳐다 왔나!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펼쳐다 왔나!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펼쳐다 왔나!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펼쳐다 왔나!

데스크칼럼

崔靑林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펼쳐다 왔나!

韓國경제 딜레마

成長도 雇傭도 妙手 없는 후미

한국 경제의 딜레마는 성장과 고용의 부재에 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용은 여전히 부족하다.

장사피아 무지여

장사피아 무지여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비판하는 글이다. 장사피아는 장사꾼을 의미하며, 무지여는 무지함을 의미한다.

정책실패의 원인과 대책

정책실패의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부패에 있다. 대책으로는 정책의 투명성과 부패 척결이 필요하다.

이 글은 한국 경제의 딜레마를 더 깊이 분석하고, 정책 실패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장사피아 무지여와 정책실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경기도의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쌀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景氣 내다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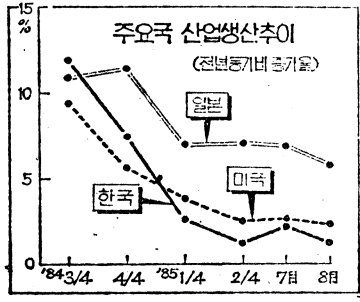
指標 계속 내리막... 在庫 11% 늘어

최근 輸出증가 추세 한 줄기 희망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제공〉

指標의 好轉과 構造的對應

(1)

經濟企劃院이 어제 발표한 月間經濟動向分析은 先行指數·同行指數, 그리고 産業生産 및 出荷指數 등이 모두 增加勢를 보여 오랜만에 밝은 展望을 낳게 한다. 景氣先行·同行의 두指數가 9月 들어 前月比 0.9%씩 增加하여 6月以後의 감소추세가 6달만에 다시 好轉된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現實的이라고 할 産業生産·出荷指數는 後年同月에 대비 今年중 가장 높은 7%수준의 증가세를 보였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製造業稼働率도 前月比 0.3%포인트가 늘어났다.

이러한 여러指標의 好轉은 그러나 現實感覺과 어느정도 일치되는것인지에 대하여 딱부러진 解答을 얻기힘들다. 왜냐하면 雇傭狀態의 惡化가 눈에보여 특히 大小기업들의 職員採用 시기를 맞은 요즘 求職과 求人人員間의 逆差는 어느때보다 간격이 큰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7~9月間 續增勢를 시험하던 輸出額이 10月들어 다시 2.8%의 減少로 반전했는데 9月 同行指數 產出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9月中 先·同行指數의 好轉을 가오고 11~12月以後의 景氣好轉

을 樂觀하는 일을 몹시 空虛한 느낌을 갖게 된다.

물론 10月中 輸出은 감소했다라도 信用狀내도액이 7月以後의 增加勢를 持續하고 있다는 集計, 그리고 해마다 처럼 年間目標를 채우기 위해 또는 外國市場의 계절적 需要集中에 맞추기 위해 11, 12月間의 輸出이 증가하리라는 觀測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指數의 好轉을 근거로 향후의 經濟豫測을 장미빛으로 보는데는 대단한 無理와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 더구나 美國의 輸入障壁強化와 市場開放壓力의 加重이 심리적 위축을 가하고 있는 데다가 그것이 未久에 해소되리라는 信憑할만한 情況변동이 없는 것이다.

비록 40% 수준이나 과대평가되어왔다고 하는 美달러貨 가치가 최근 달포동안 弱勢化조정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그 趨勢가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못된다. 게다가 國際間 통화조정에는 豫期치 않은 副作用마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弱勢化가 충분한 樂觀的 소재라고는 말할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留意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每時點에서 2~3개월씩 後行하는 諸指標의 동향에 따라 一喜一悲하는 관행에서 脫皮하여 供給側面 내지 流通·消費에 이르는 經濟全般에 걸쳐 構造的인 對應에 精進하려는 각 經濟주체 의 확고한 자세라 할 것이다.

(2)

우리는 經濟현상에 관한 指標와 현실사이의 심한 乖離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好況에서 不況사이의 振幅에 관련하여, 또는 物價指數와 生活物價에 관련하여 不一致의 경험을 적지않게 지니고 있다.

景氣진단의 不一致는 그리 멀리 及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연초이후 몇달동안이야 말로 指標를 내세운 當局과 現實을 토대로한 業界의 景氣 診斷 사이에 넓은 간격을 노출시킨 기간이었다. 소위 安定性 好況과 不況이라는 相反된 견해가 오랫동안 좁혀지지 않았다.

그 結果이 어떤쪽으로 귀착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上半期 6개월의 景氣는 아마 어떤 限定詞를 붙인다하더라도 그것을 好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그렇다고 恐慌의 의미를 내포한 不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대단한 沈滯였던것 만은 틀림없다.

그것은 上半期の GNP成長率 3.2%라는 數値에 잘 指示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은 經驗을 되새기며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것은 指標의 순간적 上向·下向에 대하여 好況아니면 不況이라는 일종의 黑白論理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指標의 신빙성이 충분한 資料와 客觀的인 分析에 의해 크게 좌우됨은 말할것도 없지만 비록 그것이 精密하다 손치더라도 거의에 全的으로 의지할 價値가 부여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諸般 統計에는 단위·표준·시간·장소의 要件에 따라 다소간의 誤差는

불가피하다. 거기에는 더구나 世界經濟의 흐름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弱點이 있다. 對外依存도가 높은 우리의 처지에서 海外經濟動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國內指標를 過信하는 것은 무모하기까지 한 것이다. 信用狀내도액의 반영만으로 不充分함은 물론이다.

특히 近間의 세계무역과 국제금융·通貨動向이 人爲的이고 急變的 要素를 지닌 상황에서 2~3개월 時差가 있는 國內指標 몇가지의 종합은 展望資料로서의 價値가 극히 制限的일 수밖에 없다.

이럴때 官邊에서건 民間에서건 우리經濟의 構造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큰 異議가 없는것은 다행한 일이다. 좁은 뜻으로의 産業構造測面 뿐 아니라 根本的인 접근이라는 넓은 의미의 構造的 개선이 必要하다는 점에 共感帶가 형성되어 온것이다.

巨視的으로 1~3次産業間·業種間的 균형뿐 아니라 微視的으로 單位 企業의 財務構造·人力開發·勞使力에 이르는 실로 廣範圍한 視野에서의 構造的 對應이 必要하다. 供給측면만이 아니다. 消費性向·저축관행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취약점의 補強이 絶실한 것이다.

이같은 마음가짐에서 우리는 저축증진에 의한 內資登원의 극대화, 技術革新에 의한 生産性向上과 品質개선, 競爭力強化와 企業收益性提高 등 종합적인 對策이 끊이지않고 세워지며 실천에 옮겨져야만 우리經濟의 將來가 보장된다는 決意를 새르이 하지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기업의 활약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診斷及展望

한국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기업의 활약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景氣와 고용處方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경제는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는 실업률을 높이고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기업의 활약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기업투자誘因강화로 成長力회복 賃金인상自制·직업알선기능 擴充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임금인상과 직업알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기업의 활약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내일 환율 전망에 「高·長·低」현상

환율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율의 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86 韓國 經濟 전망

구분	단위	1985년	1986년
국내총생산	조원	298,000	319,000
수출	조원	10,700	11,000
수입	조원	9,800	10,000
수출증가율	%	10.7	11.0
수입증가율	%	9.8	10.0
수출증가율 - 수입증가율	%	0.9	1.0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換率引上등 조치로 7%線 成長

美·日 경제 침체로 5~6% 정도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失機 않는 政策의 유연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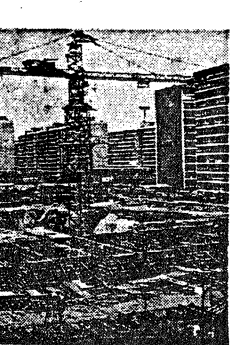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의 비극적 국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정책의 방향, 목표, 수단, 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정책의 전환은 경제정책의 방향, 목표, 수단, 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景氣-指標는 호전 「體感」은 침체

최근 들어의 비극적 국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정책의 방향, 목표, 수단, 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정책의 전환은 경제정책의 방향, 목표, 수단, 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의 비극적 국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輸出-目標 밀기와 季節-수요 패문 住宅-건설만 반짝 民間-投資 부진 여전

최근 들어의 비극적 국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정책의 방향, 목표, 수단, 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정책의 전환은 경제정책의 방향, 목표, 수단, 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의 비극적 국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정책의 방향, 목표, 수단, 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정책의 전환은 경제정책의 방향, 목표, 수단, 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의 비극적 국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정책의 방향, 목표, 수단, 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정책의 전환은 경제정책의 방향, 목표, 수단, 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景氣하파에 雇傭안화

「미국경제 전망 밝은」인식

미국경제 전망이 밝아지고 있어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경제 전망이 밝아지고 있어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밝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社會問題化로 뒤늦게 對策급급

就業안과 높은 産業성장 政策 뒷받침 時急

미국경제 전망이 밝아지고 있어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85년의 經濟

— 침체 - 失業 - 保護主義에 부대낀 한해 —

1

많은 회한을 남긴채 이해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 한해의 침체가 워낙 심각했기에 밝아오는 새해는 활기가 넘쳐 흐르는 한해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한층 절실하다. 불황이다 아니다 하는 말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해는 동이뒀다. 그러나 이해들어 얼마안가서 불황은 누구의 눈에도 확연한 것으로 되어졌다. 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3.9%, 그리고 2분기엔 2.7%라는 低成長에 빠져 들었다.

기이한 것은 그런속에서도 정부가 不景氣란 될말이 아닌 것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2.7%라는 低調한 성장속에 低迷해 있는 한 가운데서 정부는 言必稱「安定的인 好況局面」임을 내세웠다. 5월에 이르러서야 好況局面이라는 말을 안쓰게 되었고 그때를 고비로 정책은 서서히 擴大쪽으로 旋回하는 조짐을 나타냈다. 이는 그 이전까지는 不況인줄 알면서도 擴大정책을 쓸 계제가 못되었기 때문에 好況局面임을 강변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 下半期에 들어 경기는 보합상태 내지 그런대로나마 되살아 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3

분기의 성장률 5.4%, 그러나 1월부터 9월말까지의 성장률은 4%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4분기의 성장률이 7%쯤은 되어야 연간 성장률은 5%가량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연말의 상태가 그런 정도가 될 것인지는 적지 의문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숫자적인 指標는 어떠했건 피부에 와 닿는 경기의 實態는 한층 우울한 것이 숨김없는 실정이다. 경기의 停滯는 물론 輸出停滯의 결과이다. 上半期엔 輸出이 마이너스 4%를 기록했고, 下半期에 이르러서야 보합세 내지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나마 연말까지 3%정도 늘어나는데 불과할 전망이다. 하긴 줄곧 好調를 지속하고 있는 부문도 없지는 않다. 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현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새겨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경기가 침체하는데 따라 대두되는 것은 失業문제이다. 하긴 종전의 高成長추세 아래서는 순환적인 불경기하에서도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끌 정도는 아니었다. 失業문제가 두드러지게 된것은 극히 금년의 일이며 특히 올해가 최고조에 달한 것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꼬집어 댈 수는 없지만 작년과 올해 몇만명의 中東建設人力이 실업상태로 되돌아온 것을 포함, 10만명 안팎의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극히 부진하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大卒者의 20%정도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어디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大卒者 뿐이겠는가. 高卒·中卒할 것 없이 신

규노동력화 인구가 한번 일자리를 얻어보지 못한채 뒷전에 쌓여지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동력화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도 高度成長이 불가피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技術資本集約度가 급속도로 진전되는데 따라 1%의 경제성장이 흡수할 수 있는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雇傭문제의 근본은 勞動集約的인 中小企業이 위축하고 資本技術集約的인 大企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經濟力集中 현상을 가속화하는데 따라 제기되는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60년대초에 65대 35로 중소기업의 賣出額 比重이 컸던 것이 이젠 그 반대로 轉倒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 高度成長을 하더라도 失業문제는 해결될 理가 없는 것이다. 물론 產業構造도 不合理하다는 것은 말할나위가 없다.

2

85년은 美國의 보호무역주의가 유달리 극성을 떨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해 특별히 심각하게 작용한 한해였다. 美國議會의 보호주의적立法을 좌절시키고 그러면서도 議員들의 불만을 불식한다는 목적으로 美國행정부는 스스로 강력한 保護主義的 對策을 강구하고 있다. 그 첫째와 둘째로 강구한 것이 通商法 301 조의 적용인데 공교롭게도 우

리나라는 두번 다 이 적용의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다. 첫번째는 保險市場의 개방이고 두번째는 知的所有權의 보호인데 이것들과 아울러 강구한 다른 나라에 대한 대책은 전연 별 문제로 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밖에 앨범에 대한 高率덤핑관정은 말도 될 수 없는 억지인것이 분명하고, 석유시추용 해상구조물에 대한 예비관정 등도 무리가 심하다.

保險市場개방과 知的所有權 보호에 관해서는 지난 12월초 美國에서 온 實務者들과 우리나라 실무자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兩者에 관해 모두 순순히 양보를 한 바 있으나 실시시기에 관해 다소 異見이 있어 완전 타결은 보지 못하고 내년으로 移越되었다. 아물든 美國의 이들 문제에 대한 추진은 세찬 바 있고, 우리나라는 美國의 그 세찬요구에 질질 끌려다닌 꼴이었다. 85년은 그러한 한해였다.

美國은 우리나라 최대의 輸出 대상국이다. 그곳에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극성을 떨고 있다는 것은 국제수지의 見地에서 보더라도 예사문제일 수가 없다. 올해 정부는 經常收支赤字幅을 5억달러 내지 7억달러로 잡고 있다. 거기에 대해 11월말의 경상수지적자는 10억 달러를 넘고 있다. 12월의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올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데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거기에 外債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욱 빠르다. 올들어 11월말 현재로 外債는 32억달러가 늘어 모두해서 4백 63억달러로 뛰어오르고 있다. 그나마 거

기엔 60억달러가 넘는 現地金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까지 합하면 外債殘額은 5백 20억달러가 넘는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에서 外債推移는 경제정책의 綜合的인 결과이다. 外債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그 무슨말로 써도 合理化될 수가 없는 것이다.

85년은 變則的으로나마 租減法이 개정되고 韓銀特融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不實企業整理가 본격화할 참이다. 그러나 不實企業의 發生經緯로 보아 그 정리를 위한 對策이 국민앞에 公明正大하게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여운이 남는다. 올해는 企業의 投資도 크게 떨어지지 못한 한해였다. 그러나 原油값이 대폭으로 내리고 국제 原資材 가격도 계속 弱勢를 유지하여 國內의 安定基盤을 다져주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喜悲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 해는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다.